

평강의 왕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감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주후 2018년 12월 15일 (토) 제 1710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하나님의 낮추심에서 드러나는 은혜와 영광!

'2018년, 성육신의 신학적 조명과 지역사회에 실제적 성탄의미 알릴 수 있는 방법 제시

해마다 12월이 되면 온누리가 성탄의 기쁨으로 술렁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정작 그 기쁨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지 못하신다. 안타깝게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에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시게 하는 것 같다.

성탄절은 기쁜 날이다. 화려한 장식들과 크리스마스 캐롤, 아름다운 카드와 화려한 포장의 선물들이 오가고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장사꾼들도 호시절을 만난다. 그러나 대강절을 진정으로 온전하게 보내려면 우리의 맹목적 기쁨과 들뜬

마음들은 멀리하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정리해야 할 부분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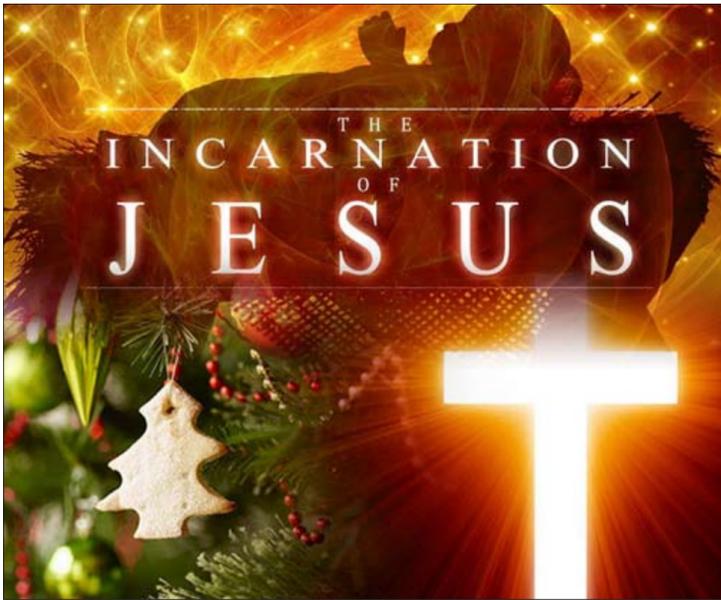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려면 바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동참하는 것이다. 온갖 희생을 치르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의 구속적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가 그 사랑의 실천을 이루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 돼야 할 것이다.

성탄절을 보낸다는 것은 성자(聖子) 하나님께서 인성(人性)을 취하시어 이 세상에 구속사적(救贖史的)으로 임하신 일을 기념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께서 탄생하셨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의 사실을 생각하며 기념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육신(成肉身)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생각하는 데 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심했기에 주님께서 성육신해 대리속죄(代理贖罪)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정도이며, 이와 같이 심각한 죄 문제 때문에 주께서 성육신하셨다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사실을 주의 깊게 생각하게 된다. 이런 성육신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성탄절이라면 참으로 무의미한 날이다.

신학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부연하자면, 예수님은 만인을 위해 단 한 번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영원부터 사랑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본성의 표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부터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신학자 칼 바르트(K. Barth)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신성(神性)은 바로 그 분의 인간되심(人間性) 가운데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며, 그 분의 영광은 바로 그 분의 수치 가운데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의 낮추심, 고난과 수치는 하나님의 본질과는 무관한, 단 한번 인간을 향해 행동하신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영원한 사건이요, 그 분의 영원



한 신적인 본성과 영광의 표현이요 그 계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자신을 낮추시는 사랑의 하나님, 영원히 사랑하시므로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야 한다.

하나님의 본성은 영원히 남(타자)과 함께 하고 참여하는 사랑, 영원히 남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연대성(連帶性), 영원히 남을 유익케 하는 희생에 있다. 이 신비를 우리는 '삼위일체(三位一體)'라고 부른다. 이 신비는 하나님의 영원한 본성 안에 있는 신

비이다. 이 신비가 역사 속에서 몸, 형태, 모양을 취한 것을 우리는 '말씀의 성육신'이라고 부른다.

요한은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육신(肉身)'속으로 오셨다고 선언한다(요1, 14). 이 육신 안에 오신 하나님이야말로 바로 자신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총만개 드러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를 바로 그분의 낮추심 가운데서만 총만히, 즉 온전히 깨닫게 된다. (4면으로 계속)

성탄시

시인 오영례
(새생명비전교회)

성탄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를 만들고 우리를 모태에서 지어 낸 하나님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우주 속으로 이 땅으로 여인의 자궁 속으로 오신 놀라운 사건.	예수님처럼 우리도 빛과 소금되어 세상 속으로 가라 하시네
천하리만큼 평범한 여인의 몸 속에서 여인의 가슴에서 자라나신 예수.	상처받지 않으려 세상을 등지기보다 세상을 품고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자라심으로 인생 과정 과정을 몸으로 친히 아시는 하나님.	내 속의 기쁨, 내 속의 감사로 세상에 성탄이 임하도록 가라 하시네.
아이의 두려움과 청소년의 방황과 청년의 꿈과 좌절, 어른의 무거운 짐을 아시는 예수	하늘에서 땅까지 낮아지고 우리 속에 들어 오실만큼 작아지신 예수.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네.	나도 낮아지고 작아짐으로 사람들 속으로 가라 하시네



시론 최해근 목사



성탄설교 김성국 목사



중세교회 1000년 조진모 목사

"세계 어느 곳에서든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준학사 / 학사 석사 박사 수료증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목회학과(D.Min), 교회음악학박사(DCM-온캠퍼스)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비전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	--	--------------------------------------

월드비전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회 책자 / 기공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Forever 우표 특별할인 판매

그동안 49센트에 판매되던 Forever 우표 (평상 가격별종 없음)가 곧 60센트로 오를 예정입니다. 특별가게 38센트로 한정 판매 합니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대표 강병찬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경공급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Grove Blvd., Graden Grove, CA 92844

- 제 49 회 - 사랑나눔 송년 음악회 및 회장단 이취임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한해도 저물어 가는 12월,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새롭게 출발하면서 '사랑 나눔 송년 음악회'를 회장 이취임식과 함께 거행하고자 합니다. 제 49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를 시작하면서 '사랑나눔 운동'을 출발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탄의 계절 주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고 떠나실 때에는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양식이 되는 사랑의 짙과 거처가 되는 사랑의 담요를 제공하시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을 사랑 나눔 송년 음악회에 정중하게 초대합니다.

 한아름 합창단 지휘자 이경호	 에버그린여성합창단 지휘자 노혜숙	 보셀레스티 어린이 합창단 클로리아 정안	 섹스콘나라 지휘자 남상명	 소프라노 솔로 조은아	 테너 솔로 이준실
---------------------	-----------------------	---------------------------	-------------------	-----------------	---------------

한아름 합창단 에버그린 여성 합창단 보셀레스티 어린이 합창단

장소: 찬양교회(김성대 목사 시무) 3401 W. 3rd St., Los Angeles, 90020 / Tel. 213-383-7284
일시: 2018년 12월 16일(주일), 오후 4시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회장단 일동 / 회장 한기형

* 이 광고는 유니온교회 협찬입니다

※축하화환은 사양하오며 사랑 나눔 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임식과 '사랑 나눔 송년음악회'의 문의는 총무 안신기 목사 (909-677-0028)에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진핑의 “신중국” 알아야 세상이 보인다!

뉴스위크, 중국을 세계 초강대국으로 부상시킨 시 주석의 정치, 외교 정책 해석(상)

외교정책 분석가들은 지난 10월 초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에서 한 연설을 '21세기 냉전'의 공식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했다. 과거 냉전에선 미국의 최대 적인 소련이었지만 이번엔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두 번째로 크고 일당 독재 체제인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월 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날 예정이다. 두 수반의 담판이 양쪽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무역전쟁을 피할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그러나 시 주석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까? 프랑스 언론인 프랑수아 부공(FRANCOIS BOUGON)은 신저 '시진핑의 내면(Inside the Mind

of Xi Jinping)'에서 그 물음에 답했다. AFP 통신의 베이징 특파원을 지낸 부공은 혁명 선구자의 아들인 시 주석이 중국 공산당에서 급부상한 뒤 그의 이름이 중국 헌법에 명기될 정도로 우뚝 솟은 인물이 되는 것을 지켜왔다.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을 세운 마오쩌둥만이 생전에 그런 특전을 누렸다"고 그는 설명했다.

1989년 톈안먼 광장 대학살 이래 미중 관계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 중국을 이끄는 시 주석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졌다(A Chinese Alternative to Democracy? How Xi Jinping Is Positioning China To Be The World's Leading Superpower).

2009년 2월 아주 보기 드문 중대한 장면이 연출됐다. 중국이 미국의 라이벌로 떠오른 당시 시진핑은 미국의 '뒷마당'인 멕시코를 방문했다. 그는 부주석이었지만 최고 지도자 1순위로 한 명으로 해외 순방을 통해 자신의 국제적 입지를 다지는 중이었다.

멕시코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마이크를 잡은 그의 앞에는 외교·외교관·사업가·학생 등 선별 초대된 중국 동포들이 늘어서 있었다. 연설의 주제는 글로벌 협력이었다. 하지만 현장의 평화로운 분위기 때문에 그의 말은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다.

"손가락질밖에 할 일이 없는 호의호식하는 외국인들이 있



저서 '불쾌한 중국(Unhappy China)'으로 또다시 공격을 내렸다. 중국은 서방의 힘에 맞서기 위해 세계의 패권적 입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한 책이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시기가 왔으며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시진핑은 그런 국가적 자존심과 자부심의 높은 파도를 탔다. 그는 한편으로는 젊은 국가 주력자들의 환심을 사고 다른 한편으로는 1980년대의 신권 위주의 주장자들을 끌어안으면서 2012년 국가주석으로서 권력의 정상에 올라섰다. 후자는 톈안먼 민주화운동 진압 후 강한 정권만이 중국을 지킬 수 있다는 논리에 설득 당했다.

정치적 겸손 전통 버리고 애국주의에 기대면서 개인숭배까지 '중국식 모델' 존재 옹호...마오쩌둥 생전에 누렸던 특전 누리

다. 그러나 첫째, 중국은 혁명을 수출하지 않는다. 둘째, 빈곤이나 기아도 수출하지 않는다. 셋째, 다른 나라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있겠나?"

그의 요지는 분명했다. 기아와 소요를 수출하는 나라는 중국이 아니라 다른 초강대국(미국)이라는 얘기였다.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관의 부대사는 외교 전문에서 그렇게 지적했다. 그는 시 부주석이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나라'를 방문하자마자 보인 '특이한 행동'을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중국은 특히 자국을 믿지 못할 초강대국으로 생각하는 서방의 비판에 분개한다. 시 부주석의 멕시코 선언은 불쾌함의 명확한 표시였다. 그는 외국 방문에서 일반적으로 서로 도움이 되는 협정과 중국의 부상에 초점을 맞추지만 그날의 언급

은 중국의 국가적인 자존심이 아니라 이제 강한 경제와 군사력을 가진 중국이 어떤 나라의 훈계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제 중국이 노임을 탈 수 있는 나라가 됐으니 미국과 서방은 조심하라는 뜻이었다.

중국의 전통적인 특징이던 '신중한 겸손'이 1990년대 들어 '국가주의'와 '애국주의'로 대체됐다. 1996년 중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China Can Say No)'의 제목과 내용이 그런 변화를 웅변한다.

중국의 젊은 지식인 5명이 펴낸 이

책은 미국이 냉전 시절 소련을 상대로 그랬듯이 지금은 중국의 성장을 방해하며 봉쇄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은 전 세계적 불평등에 반대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며, 미국의 패권 의욕을 가로막는 막강한 방파제가 될 것이다."

그 저자 중 일부는 2009년 새

1989년 대학살 후 중국은 국제적으로 파들림 당했고 당시 지도자 덩샤오핑 주석은 '도광양회'(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힘을 키운다)를 외교정책의 기조로 내세웠다. 그러나 시 주석이 등장하면서 그 시절은 막을 내렸다.

(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LA 사무실 이전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미주크리스천신문 ■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춘
The Korean Christian Press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213)674-7982(대표) (323)665-0009(광고국)
·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시론

별을 놓친 삶



최해근 목사
(봉고메리교회)

감사절을 보내기가 무섭게 우리 주변은 '특별세일'의 홍수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럴 때면 본능적으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성탄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상업적인 흐름이 성탄의 중심 메시지를 가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성탄과 관련된 사건 중에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와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머나먼 곳, 대충 추측하더라도 1,500km 이상의 거리를 별 하나의 인도를 받고 낙타를 타고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그들은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1년 혹은 1년 반 정도 소요되는 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전혀 모르는 가운데 단순히 하늘의 별에 의존하여 여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놀랍게도 예수가 태어난 지역인 예루살렘까지 정확하게 도착합니다. 돌아보면 1년 혹은 그 이상의 날들을 여행하면서 얼마든지 다른 국가나 다른 도시로 빗나갈 수도 있었습니

다. 그런데 오직 별 하나에 집중함으로써 그런 모든 오류와 실수를 방지하고 최후의 목적지까지 거의 다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가까지 너무나도 지혜롭게 여정을 이끌어왔던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서슴지 않고 헤롯왕이 머물고 있는 궁전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발견했던 그 이상한 별을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고 단정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헤롯왕이 머물고 있던 왕궁을 찾게 된 것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사고관입니다. 왕의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이라면 당연히 왕이 태어나 머물 곳으로서 왕궁을 찾은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박사들은 아마도 대단한 흥분과 자신감을 가지고 헤롯왕에게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들이 한 말 속에는 왕의 태어남을 별을 보고 분별해 내는 자신들의 특별한 지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먼 길을 축하드리러 왔기 때문에 그런 자신들의 수고를 충분히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내면의 모습도 보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그 먼 길을 오면서 고생했던 모든 수고를 한 번에 다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심리가 있었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헤롯왕 집안에 최근 1-2년 안에 왕자가 태어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 이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왕의 출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그 별의 인도함을 받아 그렇게도 먼 길을 왔는데 왕궁에서 출생한 왕자가 없으니 무엇이 어디에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어디서 무엇을 놓쳤는지 하나 둘 짚어보며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왕궁에 있어야 될 왕자가 왜 왕궁에 없을까?

허탈감과 실망감을 가진 채 왕궁을 빠져나온 박사들 앞에 문득 자신들이 지금까지 따라왔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박사들은 기쁨과 함께 긴장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별이 어디로 우리들을 인도할 것인가? 마침내 그 별은 베들레헴의 초라한 한 젊은 부부의 가정으로 박사들을 인도해 줍니다. 왕의 별이 인도해준 곳은 왕궁이 아니라 가난하고 볼품없는, 왕이 될 왕자가 태어나고 자라기에는 너무 격식이 떨어지는 그런 동네에 머물고 있던 초라한 부부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동방박사들의 행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들은 처음부터 베들레헴으로 오지 않고 헤롯왕이 살고 있는 궁궐로 갔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왕으로 태어난 왕자를 찾았기에 당연히 왕이 살고 있는 왕궁으로 갔던 것입니다. 1,500km 이상을 별 하나를 바라보고 왔던 그들이 한 순간 그 별의 인도함을 받기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가치기준을 따르다 실수를 한 것입니다. 박사들의 그 실수로 인해 결국 헤롯왕은 훗날을 도모하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베들레헴 주변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두 다 참살하게 됩니다.

그날 박사들이 헤롯왕궁을 찾지만 찾지 못했더라도, 그날 박사들이 정신을 집중하고 자신들을 인도하던 그 별만 묵묵히 끝까지 따라 갔더라면 헤롯왕의 칼에 의해 죽음의 길을 가야했던 어린 유아들의 눈물과 그 어머니들의 고통은 없었어도 모릅니다. 자신들을 인도하던 별에서부터 눈을 옮겨 '왕자는 왕궁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그 생각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그 결과는 가장 미약한 약자들에게 통곡과 아픔의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 성탄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좇아 삶을 견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이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그것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결과는 우리보다 더 약한 지구촌 그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가져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성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이 되어 지구촌 모두에게 생명을 나누는 성탄이 되기를 소망하며... 샬롬.

thechoi82@yahoo.com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점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교육부의 인준 정규대학교
미국연방정부교육부 USDE 인가 및 CHEA 인가.
ABHE - Midwest University was Granted Accredited Status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함.
www.ope.ed.gov/accreditation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e@midwest.edu

교회의 큰 절기는 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등이 있습니다. 그 절기마다 적절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절 새벽 촛불 예배를 드릴 때 자주 부르는 '작은 불꽃하나가'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어 세상을 밝힌다고 합니다. 그 2절에는 새싹이 자라나 새 희망을 만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작은 불꽃이나 새싹은 말 그대로 작은 것들이지만 점점 큰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식물의 어린 줄기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여호와의 싹"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표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의 싹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이 오늘 본문에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은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싹은 무슨 일을 하신 것일까요?

1. 심음

여호와의 싹이 그 땅에 심겨 집니다. 그 땅이란 어떤 땅일까요? 그 땅은 매우 비참한 땅입니다(사4:1).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나를 사랑해 달라는 비참함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 허물어진 사회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땅은 다툼과 절망과 고통과 실의의 땅입니다. 그런 땅에 여호와의 싹이 심어지면(사4:2), 이 싹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그 땅도 아름답고 영화로운 소산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메시아의 오심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가 처한 환경은 절망과 고통의 환경이었습니다. 시므온은 마침내 아기로 오신 메시아를 만나 아기를 예수님을 안고 노래했습니다(눅2:28-32).

헬라이어에는 잡다, 취하다, 떠맡다, 라는 뜻을 가진 '담바노'가 있고 안다, 친절히 영접하다, 보유하다, 인정하다, 라는 뜻을 가진 '데코마이'가 있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았을 때는 '데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꼭 안은 것은 예수님을 따듯이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원토록 보유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에게

심은 것입니다. 시므온은 자기가 꼭 안은 이 작은 아기로부터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아기를 영접하는 모든 곳에 구원과 빛과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찬송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헨델의 메시아가 가장 많이 연주됩니다. 음악가로서 명성도 사라지고, 빛만 잔뜩 쌓이고, 몸은 아픈 헨델에게 한 친구가 이사야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시를 보내주었습니다. 절망 중에 있던 헨델은 이사야에 예언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24

입니다. 그 땅에 심겨진 여호와의 싹이 아름다움과 영광스런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절망의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은 그 사람에게 여호와의 싹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꼭 안으십시오.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헨델처럼 영접하십시오. 자신의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도구가 될 것입니다. 희망의 싹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

여호와와 함께 큰 열매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와의 싹, 어린 순이신 예수님은 피를 흘려 죄인들을 씻어주시고 청결케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작은 자기희생을 통해 절망의 사람을 살려줍니다. 19세기 러시아의 니콜라이 황제는 야간에 병사들의 근무 상태를 점검하곤 했습니다. 하루 밤은 토치리프 상사의 불 켜진 막사에 들렀는데 그가 술에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에 노트가 펼쳐 있었고 토치리프 상사가 휘갈겨 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박의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준 니콜라이 황제를 위하여 충성하며 살았습니다.

피를 흘린 여호와의 싹,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희생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날 위해 피 흘려 구원해주신 예수님에게 남은 평생 충성하고 또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 밖에 없네/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

의 싹이 만드는 초막이란 다른 야닌 교회입니다. 스가라서를 보십시오.

"말하여 이리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 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속 6:12, 13a)

싹이라 이름 하는 예수님이 여호와의 전,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미미한 것 같으나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예배도 받으시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세상의 모든 환난에서부터 보호하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싹이 만든 초막은 무엇보다 그 초막을 만드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예배드릴 때 동방박사들이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위험으로 가득 찬 먼 길을, 어떤 방해에도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예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린 예배를 기억하여 우리의 예배도 쉽게 포기하고 대충 드러지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싹이 만든 초막, 교회는 예수님이 보호해주시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안전한 곳은 백악관도 청와대도 아닙니다. 교회가 가장 안전합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어떤 세력도 예수님이 지키시는 교회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최후 승리가 됩니다.

여호와의 싹은 이토록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싹은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싹은 절망의 땅에 심겨져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여호와의 싹은 우리 죄를 구속할 피를 흘리는 싹입니다. 여호와의 싹은 초막을 만들어 그곳에서 예수님은 경배도 받으시고 그것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호와의 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의지합니다. 여호와의 싹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성령님을 송축합니다.

성탄설교

여호와의 싹

이사야4:1-6



김성국 목사 | 킨즈장로교회 담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9년도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9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The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the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9.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9)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1) Dates: May 17(Fri)-20(Mon), 2019
 2) Place: HILTON LOS ANGELES AIRPORT, USA

3. Examination Subjects
 1) Written Test : (1) Church History (2) Systematic Theology (3) American Church History (4) Constitution of KAPC
 2) Written Assignment : (1) OT Exegesis Paper (2) NT Exegesis Paper (3) Thesis Paper (4) Manuscript of Sermon
 (1) OT Exegesis Text : Ezekiel 36:22-31
 (2) NT Exegesis Text : Hebrews 2:1-13
 (3) Thesis Topic : Evaluate "Replace Theology" in the view of the Reformed Theology.
 (4) Sermon Text : Matthew 28:16-20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 * Plagiarism will not be tolerated !!!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2. Use 12-point font (Times New Roman), 1-inch margins, double space, use page numbering, proper footnoting, and include bibliography.
 3. Both thesis and exegesis papers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excluding title page and bibliography.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 e., footnotes or endnotes).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jhanrev@g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 SunghoonChoOTExegesisPaper.pdf)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3) Oral Interview

4. Accompanying Documents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of Bachelor & M. Div. degree or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9.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 Div. program.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5) Curriculum Vitae (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7) Fee: \$15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9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9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3) The results of the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43rd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1-24, 2019).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6. Miscellaneous Information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7-20, 2019 HILTON LOS ANGELES) through Rev. Jae Hyun Han.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ination room.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7. Submission Address
 Rev. Jae Hyun Han / Address: 1173 Elm Ave. Seaside, CA 93955 U.S.A.
 Cell : (831) 920-7043, E-mail : jhanrev@gmail.com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John E. Jho (702) 296-9193 drjho@hotmail.com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Jae Hyun Han (831) 920-7043 jhanrev@gmail.com

총회장: 김재열 목사 서기: 권혁천 목사 고시부 부장: 조용철 목사 고시부 서기: 한재현 목사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교회)



하루라도 젊었을 때 시작해야 하는 것...

“우리는 돌이 있어야 진실을 말해요.” 요즘 저희 부부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종종 하는 말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아마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이 말에는 저희 부부의 고충이 담겨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기억력이 비교적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둘 다 자주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지” 다짐하며 주의 깊게 듣고도 돌아서면 “그게 뭐였지?” 기억이 가물거립니다. 그래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 말이 맞다고 우겼지만, 요즘은 아주 겸손하게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나이 탓인가? 팔순이 훌쩍 넘으신 저의 어머니는 아직도 매우 총명하시고 기억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아들인 저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고 기억력이 감퇴하면서 늘~ 무엇인가 찾습니다. “내 안경이 어디 있지? 내 자동차 키는? 내가 오늘 영양제를 먹었나, 안 먹었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습니다. 그런데 제 친구의 아버님 이야기를 듣고 답을 얻었습니다.
90을 넘기신 친구의 아버님은 아직 매우 건강하셔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십니다. 그분이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차 열쇠, 지갑, 돈 등등 주머니에 있던 모든 것들을 지정된 장소에 놓는 일입니다. 보통 때에도 쓰신 물건들을 골바로 지정된 장소에 두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디

에 두었는지 찾을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머리가 아니라 습관으로 기억하는 법을 터득하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일상생활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습관은 필수적입니다. 젊었을 때는 좋은 습관이 개인의 성장과 성공에 큰 도움을 주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좋은 습관이 우리의 삶의 질을 지켜줍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머리로 살기보다는 좋은 습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흐릿한 잉크가 명철한 두뇌보다 오래 남는다. 메모는 천재보다도 부지런히 메모하는 습관을 이기지 못합니다. “성공은 대박이 아니라 누적이요,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는 말처럼 좋은 습관으로 살 때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삶의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일상생활의 열쇠도 좋은

습관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습관으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평생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는 왕조가 바뀌어도 숙청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 세워진 왕들의 신임을 얻었으며, 80세 노인이 되어도 조금도 흠잡을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눅22:39) 예수님은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셨 습니다. 습관에 따라 회당에 들어 가셔서 율법을 읽으셨고,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또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무리를 먼저 보내고 산에 올라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으며, 열도의 제자들을 세우기 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 등등...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도 항상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 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생을 만

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좋은 습관을 기르세요. 좋은 습관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고,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특별히 좋은 신앙의 습관을 기르세요.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습관, 하나님께 예를 드리며 이웃을 섬기는 습관, 복음을 전하는 습관, 새벽 제단을 쌓는 습관... 좋은 습관이 일상생활의 성과를 결정합니다.
요즘 깜빡깜빡하십니까? 돌아서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습관으로 삽시다. 하루라도 젊었을 때 좋은 습관을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낮추심에서 드러나는 은혜와 영광

(1면에서 계속)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도파적이거나 영혼만의 반쪽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적이고 책임적이고 온전한 사랑이다. 이 사랑은 자신이 창조한 것을 방기(放棄)하고, 마치 도박이나 하듯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 창조한 것에 신실하고 책임지고 구원하고 완성하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자기지향적이고 자기 완성적이고 자기위안적인 것이 아니라, 타자기향적이고 타자완성적이고 타자구원적이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의 탄생사건으로부터 받는 영광과 은혜와 진리이다.

그렇다면 예수의 탄생을 어떤 실천적 의미를 갖는가? 이러한 성탄의 신비가 현실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어떤 실천적 행동을 촉구하고 유발하는가?

먼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를 이용해 자연스럽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릴 수 있다면 그것은 이 날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될 것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진정한 의미 없이 이 절기를 보내는 데 익숙해졌지만 이 기회를 이용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왕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이 절기를 이용해서 1. 크리스천들로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2.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성탄의 참된 의미를 전하는 기회로 삼

으며 3. 그리스도의 정신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참 사랑을 표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편 연합감리교회(UMC)는 교회공동체 차원에서 지역 커뮤니티에 새롭게 다가갈 방법을 제공한다. UMC 산하 미 전역에 걸쳐있는



교회에서 모인 실제 사역들 중 4가지만 소개한다(4 great Advent outreach ideas):

보물찾기 목회

보물찾기에서 대부분의 청소년은 단서나 사진을 수집하거나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는데 집중한다. 플로리다주 포트 세인트 조(Port Saint Joe)에 있는 제일연합감리교회의 청소년들은 보물찾기 시간을 전도의 기회로 전환했다. 그들은 보물찾기를 “불특정된 이들을 위한 선한 행위” 게임으로 만들었다.

청소년들은 교회에서 만나 팀으로 나눠 차에 타서 8-10가지의 선한 행위를 완료하라는 지시를 받는다. 이 선한 행위는 동전 주입식 세탁실에서 동전을 세는 것부터 식료

품을 차까지 들어다주는 것 그리고 지역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것까지 다양하다.

천막 예배드리기

거의 모든 교회에서 성탄절 전야 예배를 드린다. 텍사스주, 롱뷰(Longview)에 은혜의십자가길 연합감리교회(Grace Crossroads

United Methodist Church)는 구약 성경과 점목해, 크리스마스 전 주일에 예배를 텐트에서 드린다. 그들은 현지 고등학교의 주차장에 텐트를 설치하고 마이크를 연결하고 교회의 긴 의자 없이 예배를 드린다. 동 교회 담임 존 화이트 허스트(John Whitehurst) 목사는 예배에 때마다 참석하는 사람 중 25%가 교인이 아니라고 말한다!

텐트를 칠 수 없는 지역에서는 고등학교 체육관이나 지역 회사의 회의실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본다. 여러분이 예배를 지역사회에 가져가는 방법을 가장 잘 알고 있다.

성탄절 전야에 일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보따리 아이오와주 웨이버리(Waverly)

에 있는 트리니티연합감리교회의 성도들은 성탄절 전야 예배가 특별한 성만찬 예식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들은 예배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하는 그 밤에 그 지역의 많은 사람이야 근해야 하는 것을 알았다.

성탄절 전야 일찍, 데보라 와이즈 목사는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크리스마스 간식(보통 초콜릿으로 덮인 프레첼)을 만들었다. 성탄절 전야 예배 후, 참석자 가족들은 크리스마스 간식을 들고 거리로 나아간다. 그들은 병원, 소방서, 주유소(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에 잠시 들러서 선물을 나누고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충분하다

알칸소주 살렘(Salem)의 작은 마을에서 비올라연합감리교회(Viola United Methodist Church)는 유일한 주류 교회이며 교회력을 따르는 유일한 교회다. 강림절 동안 그들은 예배 전과 후에 공동체 건설의 기회를 가진다. 전통적인 예배를 깎아내리기보다, 오히려 기념하고, 예배를 통해 지역 사회에 제공하는 독특한 목소리를 내는데 관심을 가진다.

쉐리 베이커(Cherie Baker) 목사는 지역사회에서 전통적인 교회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이 오래된 신앙의 전통과 연결되었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말한다. 교회 예배력을 따라 평화, 기쁨과 사랑에 대해 묵상하고 전통을 축하한다. 그러면 당신만큼 전통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시진핑의 “신중국” 알아야 세상이 보인다!

(2면에서 계속)

시 주석은 그런 은인자중과 완전히 결별했다. 그럴 경우 일본과의 해묵은 적대감이 다시 커진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았다. 또 미국이 21세기 중국의 최대 적이며, 중국을 약화시키려고 작심한 나라라고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개의치 않았다.

시 주석은 자신의 외교정책 노선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군부에 대한 접근권에서도 전임자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 2016년 그는 갑자기 ‘중앙군사위 연합지휘중심 총지휘’(군 총사령관이라는 뜻)라는 새로운 직책을 자신에게 부여해 외부의 분쟁이나 지역 긴장 등 모든 군사작전에서 인민해방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또 남중국해에선 베트남과 필리핀 같은 이웃나라와 영유권을 다투는 지역에 중국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인공섬 건설을 지시했다. 이런 조치와 함께 중국은 정부간 기구인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영유권 판결을 처음으로 무시했다. 2016년 여름 PCA는 필리

핀의 제소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면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며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다. 시 주석은 그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은 한 걸음 더 나아가 PCA의 판결을 두고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서방의 음모라고 비난했다.

시 주석의 공격 수단에는 2008년 금융위기 후 서방 국가들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전술도 포함됐다. ‘기회가 오면 잡아야 한다’고 마오쩌둥이 말했듯이 같은 기간 지식인들은 중국의 ‘국제무대 발언권’을 요구하며 ‘중국식 모델’의 존재를 옹호하기 시작했다.

(다음호에 계속)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아브라함의 아버-데라

2018-2019, 40일 특새를 시작 하면서,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인물들을 찾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주제를 정했다. 그중에 첫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아버지 데라에게서 시작된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제조업자였다. 당시의 종교적인 환경 속에서 우상제조업자는 상당한 권력과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직업이었다. 따라서 그 땅에서는 유지 역할도 했을 것이며, 이 모양 저 모양 막강한 권세를 가졌으리라 짐작된다.

그런 그가 갈대아 우르 땅을 버려두고 아들 아브라함의 가정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땅을 향해 출발했다. 많은

단마귀들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 그래서 조용하던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 어수선해진다. 것이다. 이곳저곳에 찢고 다치고 상처가 나타나니, 어떤 목사님은 '연말에는 험뜰험뜰 거리면서 험뜰고개를 겨우 넘어간다'고 표현한다.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를 지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연말이 되는 시점에서 교회 가운데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직분을 감당하느니 못하느니, 구역을 옮긴다. 만든다 등의 말들이 나온다. 봉사부 편성에 대해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는 말을 한다. 더 나아가면 교회를 신사적으로 옮기기 위해서, 사역자가 어떤 문제인지 파악도 하기 전에 미리 조

같다. 성도들을 너무 배려하기도 하고 지레짐작 어려움을 만들고 싶지 않은 탓이라고 본다.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

최근 한국의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비판이 많은 것을 본다. 평생 군인이었던 사람이 적폐로 몰리자 목숨을 끊음으로 마지막까지 굴종하지 않으려했던 그는 참 군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참 군인은 생명에 대한 애착보다 자신의 신념과 의지, 명예를 더욱 귀히 여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법부에 대한 적폐 청산의 갈등, 경제난국, 급변하는 한미관계 속에서의 역할... 등 쉽지 않은 일들이 우리조국

회 세우는 일을 계획했던 것도 알고 있다. 당시의 반공에 대한 강한 인식 속에서 특별한 현상이라고 생각한 기억이 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을 진대, 오직 한 가지 통일만 바라보고 가는 대통령을 세우고 나아가도록 하는 것도, 부정적인 수많은 이유가 있다할지라도 통일의 일 하나만으로도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왕이면 문대통령이 고집을 내려놓고 온 나라가 서로 통합과 상생을 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최근의 부시대통령의 죽음과 이에 대해 정파를 초월해서 애도하는 모습 속에 감격함을 가지면서, 조국을 향한 아쉬운 마음을 가진다. 감옥에 있는 두 전직대통령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회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지난 10월 한국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 즉 입영 및 징집 거부자들에게 그동안의 판례를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바른 결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청년부에서 윤

A: 대법원이 지난 10월 1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군 입대와 징집거부에 유죄 판단을 유지해오던 대법원이 14년 만에 판례를 뒤집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병역 거부자들은 국방의 의무를 부정한 게 아니라 징집과 군사 훈련을 거부할 뿐이며 이를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결정은 마치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했던 미 대법원의 결정처럼 소수자의 인권(Human Right)을 너무 중요시한 나머지 결과론적으로 다수자의 인권과 양심을 짓밟는 결과를 낳게 하는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기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 대법원의 결정은 전통적 국방의 의무에 대한 판례를 깨는 것으로 지금 군에서 복무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종교적인 신념이나 양심도 없는 자들로 규정되기 쉽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성심을 다해 복무하는 젊은 군인들이 모독하고 군대는 재간(?)을 피울 줄 모르는 자들이나 가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기에 군의 분노와 사기 저하의 결과를 낳게 할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대체 복무를 정한다고 하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평가 절하하고 건장한 남성은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병역의 형평성의 원칙에도 위배가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군대에 가려고 하겠으며 군대에 가는 자는 종교적인 신념도 없는 자라고 낙인이 찍힐 것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에 대한 무죄판결은 성경적으로나 헌법상으로 잘못

저는 과거에 보병 제 26사단 73연대에서 군복을 할 때 대대훈련소에 들어온 한 병사가 훈련거부를 하고 탈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마 후에 접혀 대대 영장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만나 기도하며 성경을 가지고 설득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증인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기에 어떤 나라에나 군대에도 충성을 바치지 않으며 살육하는 일에 참여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구와 성경은 그런 규정이 없으며 시민이라면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양심이요 선한 양심입니다.

현재 한국은 북한과 휴전선 155마일을 두고 아직도 총칼을 겨누며 남북이 대치하는 정전(停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입영거부나 징집거부, 훈련 거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무를 포기하고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적인 양심, 빼돌려진 양심입니다. 헌법 제 39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정은 성경적으로도 위배됩니다. 구약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필요시에는 전쟁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성경에는 가나안 전투 및 수많은 악과의 전쟁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12지파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건장한 20세 이상된 장정의 수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는 60만 정도라고 계수되었습니다. 20세 이상된 건장한 남성은 군대복무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남자 뿐 아니라 여자도 의무복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는 일에 아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증인의 종교적인 신념을 병역의무라는 헌법기치보다 상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한국 대법원이 성경에 나오는 종교적 신념을 오해한 것입니다.

앞으로 군대 가기 싫으면 군대안가는 특혜(?)를 받기 위해 군대 가기 몇 달 전에 여호와증인에 출석, 등록하면 군대를 피할 수 있기에 이것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증인에는 수많은 병역문제에 걸린 젊은이들의 등록절차 문의가 쇄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대법원의 결정은 소수자를 위해 다수자의 양심에 상처를 주는 형평성에 위배를 주는 결정이라고 봅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리더를 위한 기도, 공동체의 부흥

- 가장, 목회자, 위정자

것을 포기해야 함에도 그와 같이 한 것은 상당한 영적 은혜가 그의 삶에 나타났음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데라는, 목표로 삼았던 가나안과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의 중간쯤 되는 하란이라는 곳에서 지역의 우상 문화와 세상일들에 빠져 그곳에 정주하게 되었다.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거기 머물렀던 것이다. 어떻게 그의 인생을 설명할 수 있을까? 출발은 좋았지만 결과는 실패였던 용두사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삶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짧게 설명한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거기 거하였으며... 죽었더라' 가고자 마음은 먹었지만, 조금 가는 듯하다가, 결국 못가고 인생이 끝났다는 말씀이다.

용한 위닝과 노티스를 주는 때이다. 때이다. 그러다보니 힘 있게 새해를 열고 사역을 출발해야 하는데, 연말에 진을 그렇게 다 빼면서 험뜰고개를 지나고 보니 사역할 힘이 없어지더라는 것이다.

본 교회는 올 한해 특별히 풍성한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다.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에서도 믿음의 일들을 많이 나누고 보고하는 복된 시간들을 가졌다. 여름에 한국교회를 방문한 후에 이런 저런 사역의 도전들을 받으면서 새 재정과 기타여건이 부족함에도 교회에 필요한 많은 일들을 감당코자 하였는데, 쓰고도 남음이 있었다. 예상치 못한 건축사역과 재정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무리 없이 잘 감당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요인을 발견했다.

대한민국에 존재한다.

필자는 철저히 성경주의자이고, 교단이나 자라온 배경들을 보면 보수의 색깔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고 할 수 있다. 성경을 알면서 어떻게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권을 함께 지지할 수 있던 말인가? 이를 공식적으로 공인하는 무리들과 어떻게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던 말인가? 심정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으로 부터 최근의 일들까지 지지할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전직 대통령 둘도 감옥에 두고서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져있음도 보게 된다. 예전의 진보정권이 가진 약자를 위한 배려와 정의, 겸손함과 낮은 자세에서 오히려 친밀감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잘 포장된 독선과 오만이 더 악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다. 때로는 감탄도 한다. 어쩌면 저렇게 좌파정권은 포장과 감동을 잘 전할까? 그런 생각도 한다. 좌우의 날개가 같이 힘 있게 날아올라야 비상이 가능할 텐데, 지난해 우파의 무능함과 계엄령과 독선과 정략이 탁월한 좌파의 기울어짐으로 조국의 미래가 결코 낙관적이지 않아 보인다.

하나님의 절대주권-권세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어린 시절,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더 생각을 가다듬게 된다. 80년대 후반 당연히 당선될 줄 알았던 민주진영에서 대통령을 내지 못했을 때에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해 말씀하신 기억이 난다. 필자의 주변은 대부분이 보수적인 색채가 아주 강한 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 그가 대통령이 된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과, 우리는 우리의 정치적 선호를 넘어서서 말씀을 기준해서 생각하고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문대통령은 통일에 대해서만큼은 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올인하는 것을 본다. 여러 부작용이 있다하여도, 이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왜 그는 그토록 통일에 집착하는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연역적 관점에서 생각할 때 쉽지 않게 답을 찾게 된다.

80년대에 한국에서 기도원에 올라가면 북한선교를 위한 기도처를 따로 마련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시로 기도하는 것을 본 기억이 난다. 또한 북한 지역 곳곳을 381군대로 나누어서 교

복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대통령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야 한다. 공동체의 리더가 잘못된 선택을 향해 나아가갈 때, 그 폐해는 전적으로 백성들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리더의 마음

공동체의 리더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리더의 마음은 다 같을 것이다.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도둑질하고 강패 짓을 하라고 시키겠는가? 가정이 잘 되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랄 것이다. 어느 교회의 목사가 성도들이 저주 받고 실패하고 망하기를 바라겠는가?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의 재임 시에 나라에 환란과 고통이 찾아오고 망할 나라를 꿈꾸는 자가 어디 있었는가? 모든 권세와 모략과 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아래 속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주여 우리 가정을, 주여 우리 교회를, 주여 우리나라와 민족과 조국과 우리가 사는 이 땅 미국에 땅국하신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소서! davidnjeon@yahoo.com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Table with subscription rates for 1 year: USA \$100, Canada \$110, Korea \$190, Europe \$190, N. America \$190, Africa \$190.

Subscription form fields: 신 청 유 형, 구독자 이름, 영 어, 배 달 주 소, 전 화 / Fax, 받는 분 이름, 전 화 번호 / Fax, 배 달 주 소, 교회 / 기관 명.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구라니(GURANI)



2개 국가에 거주하는 4개 구라니족의 통합 파일. 구라니족은 이란의 종족으로서, 그 아래 바젤라니족(Bajelani)과 하우라미족(Hawrami) 등 많은 하위 종족이 있다.

(Gorani)는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있다. 쿠르드족은 BC 2400년 이후로 쿠르디스탄을 차지해왔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BC 900-500년에 번성했던 미디어 제국 유목민들인 메데스인(Medes)의 후손이라고 주장한다.

삶의 모습

구라니족은 주로 정착농들이지만 자질 있는 군사들도 알려져

있다. 19세기에는 페르시아 군대에 보병 연대급의 1000-2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하지만 쿠르드족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페르시아 소속을 완전히 포기했다.

쿠르디스탄에서는 농사와 목축이 주된 직업이다. 주요 작물은 곡물로서, 주로 밀, 보리, 호밀, 귀리 등이다. 그 밖의 작물로는 면화, 올리브, 배, 사과, 담배 등이 있다.

1980년 9월부터 1988년 10월까지 이란과 이라크는 전쟁을 치렀다. 이 8년 동안 약 170만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100만명이 죽었다. 전쟁의 근원지는 페르시아인 이라크와 아랍인 이라크 사이의 오래도록 계속된 지역경쟁에 있었다.

1974년에 이란은 이라크 북부

에 있는 쿠르드 민족주의자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이 이라크 정부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도록 했다.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은 이어서 이란을 침공했으며, 쉽게 승리를 쟁취 하리라고 믿었다. 이슬람 공화국에 정권을 가져다준 그 전회의 혁명 때문에 이란의 군사력이 상당히 약화되었으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보다 최근에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과 이웃 종족들의 삶은 페르시아 걸프전에 의해서 혼란에 던져졌다. 이라크 군대는 쿠르드족 반란군과 시민들을 이란 및 터키의 국경지역으로 몰아냈으며 난민들은 위기에 처해졌다.

신앙

구라니족은 거의 모두가 무슬림이다. 일부는 시아파(Shi'ite) 무슬림이며, 일부는 정통 수니파

(Sunni) 무슬림이다. 시아파의 신앙은 매우 격렬한 황홀경에 빠지는 걸 추구하며, 수니파는 단순하고 침착하다. 시아파는 인간의 자유 의지를 주장하고, 수니파는 운명을 침공했으며, 쉽게 승리를 쟁취 하리라고 믿었다.

이라크와 이라크의 문화는 이슬람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 이것은 두 나라의 예술과 문학, 사회구조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이라크-이라크 전쟁 이후, 이란에는 정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79년, 시아파 성직자는 이슬람화 개혁운동을 주도했다. 여자들은 전통적인 역할로 돌아가도록 명령받고, 영화관은 폐쇄됐으며, 라디오 방송국은 음악방송이 금지됐다.

별이 또한 다시 실시되었다. 여자들은 전통 "차도르(chadors)"를 입게 되었다. 차도르는 대개 검고 험령한 가운으로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신체를 다 덮고 얼굴까지도 가리는 옷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최근의 걸프전의 결과로서 이라크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기본적인 식량과 의료품이 상당히 부족하다. 물질적으로 이 지역 사람들의 필요는 절실하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필요는 훨씬 절실하다. 구라니족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된 어떠한 기독교 자료도 없다.

이슬람이 이라크와 이라크의 국교이기 때문에, 구라니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 국가들의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개방되기 위한 열쇠는 기도뿐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아기 예수 앞 산타' 가 불쾌한 콘텐츠?

페이스북이 아기 예수 앞에 무릎 꿇은 산타클로스 이미지를 숨김 처리해 반축을 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산타 이미지를 인터넷에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세대가 된 것 아니냐며 한숨 쉬고 있다.



라이프사이트뉴스닷컴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이 산타 이미지를 '커뮤니티 규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이를 숨김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이미지는 2015년 12월 1일 게재된 것으로 산타가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이 예수 대신 전 세계의 믿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선물과 사랑, 은혜를 전하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미지에는 '이 사진은 자동적으로 숨김 처리됐으며 보고 싶다면 해제 버튼을 누르세요'라는 안내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이미지가 커뮤니티 규정 중 '불쾌한 콘텐츠(Violence and graphic content)'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라이프사이트뉴스닷컴의 보도에 큰 관심을 보였다. 기사에 페이스북에 오른 지 18시간 만에 4만2000여회 공유와 6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페이스북은 하루 만에 해당 이미지를 원상 복구했다.

아기 예수와 산타가 왜 불쾌한 콘텐츠로 분류됐는지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페이스북의 해당 규정을 살펴보면 특정 종교와 관련한 게시물을 올릴 경우 혐오와 폭력을 조장할 수 있으니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페이스북은 '혐오 발언은 협박과 배척이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실제 폭력을 조장할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페이스북에서는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성적 취향, 성별 또는 성적 정체성, 심각한 신체적 장애 또는 질병과 같이 보호받는 특성을 이유로 타인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을 혐오 발언으로 정의한다'고 밝히고 있다.

기독교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네티즌은 페이스북에서 "요즘 학교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나 예수(JESUS)'를 쓰지 말라고 해 문제가 되는데 그 추세가 페이스북에도 반영되는 것 같다"면서 "예수 탄생을 기뻐하는 크리스마스조차 마음껏 즐길 수 없으니 슬프다"고 적었다.

부시 '최고의 아버지...' 찬사·유머 넘친 국장

"아버지가 그리울 겁니다. 당신의 품위와 진심, 친절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부시'의 장례식에서 추모사를 읽던 아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당신은 아들과 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라는 말을 힘겹게 마치고 고개를 숙였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관을 한 번 두드린 후 자리로 돌아가 눈물을 닦아냈다.

제41대 미국 대통령 조지 H W 부시의 장례식이 5일 오전 11시(현지시간)부터 2시간15분간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거행됐다. 부시 전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은 숙연했지만 찬사와 유머도 함께했다. 사이가 좋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들도

이날만큼은 장례식장 맨 앞줄에 나란히 앉아 고인을 기렸다.

부시 전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그는 "역사는 아버지를 위대한 미국 대통령으로 기록할 것"이라며 "그는 비길 데 없는 외교력을 지닌 대통령, 엄청난 업적을 이룬 최고 사령관, 명예와 위업을 지키는 신사였다"고 회고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어 "아버지는 남을 섬기는 사람의 영혼은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는 천 개의 불빛(a thousand points of light) 중 가장 밝은 빛"이라고 말했다. 천 개의 불빛은 1988년 고인이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 수락연설에서 수많은 민간 봉사단체들을 언급하며 사용한 표현이다. 아버지 부시는 이후 여러 자리에서 봉사와 희생을 의미하는 '천 개의 불빛' 단어를 썼고, 이는 그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돼 왔다.

부시 전 대통령은 슬픔 속에서도 특유의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다. 그가 "아버지는 우리에게 완벽에 가까웠지만, 완전히 완벽하지 않았다"며 "그의 골프 쇼트게임은 형편없었고, 무대에서 모습은 프레드 아스테어(미국 유명 무용가·가수)와 정반대였다. 특히 브로콜리를 못 먹는 식성은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됐다"고 말하자 추모객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부시 전 대통령은 아버지의 생전 유쾌했던 성격을 생생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그는 "아버지는 85살에 꽤 속성으로 대서양을 가로질렀고, 90살 때는 낙하산을 퍼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렸다"고 회고했다. 고인이 입원했을 때 절친한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이 병실에 몰래 들어온 보드카를 마셨던 일화도 공개했다.

미 언론은 아버지 부시의 장례식에 대해 "전체적으로 매우 부시 같았다(Bush-like)"고 표현했다. 고인이 생전 야당 의견을 경청하고 온건하게 대했던 것을 빛낸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당을 초월해 수많은 정치인들이 한데 모인 이 자리는 미국이 수호해온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일깨워줬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의 정치적 통합이라는 선물을 남기고 떠났다"고 했다.

11년 만에 국장(國葬)으로 치러진 이번 장례식에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버락 오바마, 빌 클린턴,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부부 모두 참석했다.

장례식장에 가장 늦게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와는 악수를 나눴지만, 2016년 대선에서 경쟁 상대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남편 클린턴 전 대통령과는 인사를 하지 않았다. 클린턴 전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정면만 응시했다. 미국 언론은 "트럼프는 여전히 혼자였다"고 썼다.

장례식이 끝난 후 부시 전 대통령의 시신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실려 그의 고향인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옮겨졌다. 6일 오전에는 시신이 안치된 세인트마틴 성공회 교회에서 시민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행사가 열렸다.

"성별 선택의 시대, 나이도 선택..." 소송

한 네덜란드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자신의 나이를 스무 살 적게 바꿔달라는 소송을 냈다. 얼핏 황당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차별을 이유로 성별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신의 요구 또한 존중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게 이 남성의 입장이다.



5일 CBN뉴스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사업가인 에밀 라텔밴드(69)는 최근 국가를 상대로 1949년 3월 11일

인 자신의 생년월일을 20년 뒤인 1969년 3월 11일로 바꿔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라텔밴드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원치 않는다면 이름이나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나이 또한 내가 원치 않으면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나이로 인한 차별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라텔밴드는 "스마트폰 데이팅 앱인 'Tinder'에서 내 나이를 69살이라고 소개하면 어떤 이성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이 얼굴로 49살이라고 하면 여성들의 반응이 달라질 것"이라며 "69살이라는 나이에겐 제약이 많다. 하지만 내가 만약 49살이라면 차도 집도 마음대로 사고 일도 더 할 수 있는 등 차별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텔밴드는 또 건강 검진에서 자신의 신체 나이가 45세로 나왔다면만 약 20년 젊어질 수 있다면 연금도 받지 않을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법원이 라텔밴드의 주장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전통적 가족관 등 사회 통념과 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만큼 라텔밴드가 패소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반기를 들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번 소송이 젠더 이데올로기의 허점을 잘 보여준다면 승원을 보내고 있다.

2015년 이후 유럽유입 무슬림 중 회심자 2만명 추산

2015년 이후 유럽에 유입된 무슬림 중 기독교로 회심한 이가 약 2만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기간 유입된 무슬림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무슬림 이주민 회심 비율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두 연구원 알렉산더 밀러 박사는 지난 3일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주최한 강연에 참석해 "무슬림 국가에서 유럽으로 밀려들어 온 난민과 이주민들 중 상당수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 그분을 따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밀러 박사는 2015년 발표한 논문 '무슬림에서 개종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세계 인구 조사'를 통해 1960년 이후 세계적으로 무슬림의 회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의 논문에 따르면 1960년 20만명 남짓했던 전 세계 무슬림 회심 인구는 근래 들어 거의 1000만명으로 증가했다.

그가 강조한 2015년 이후는 시리아 내전의 피해자들이 유럽행 난민 대열에 동참하면서 유럽 내 무슬림 수가 급격히 증가했던 때다. 당시 독일이 100만명 넘는 난민을 받아들였고, 오스트리아 역시 약 13만명의 난민을 수용했다.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3년 간 유럽에 유입된 무슬림 수는 2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밀러 박사는 "일부지만 기독교를 접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모순을 인식하고 회심하는 경우가 분명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범 리트케르크 네덜란드 라브리 공동체 대표는 좀 더 자세히 무슬림의 회심 사실을 전한다. 그는 '유럽의 난민 사태에 대한 기독교적 시각'이란 논문에서 2015년 한해 독일에 몰려든 100만여명의 난민 중 최소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한 지역의 교회에선 이주 무슬림 70명이 한 번에 세 신자가 됐다고도 소개했다.

한편 밀러 박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Protestant Faculty of Theology'의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성공회 신부로 목회도 함께 하고 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환대 어디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베델교회에서 난민 가족을 위해 릴레이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최근 널리 전해졌다. 언제 강제추방을 당할지 모르는 아르메니아 가족이 베델교회에 도움을 청했다. 이에 교회는

공공기관이 종교예식을 방해할 수 없다는 국내법을 이용해 10월 26일부터 예배를 시작, 6주째 쉬지 않고 이어오고 있다.



탐라지안(Tamrazyan) 씨 가족은 네덜란드에 9년째 살고 있다. 아버지는 아르메니아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목숨이 위협하다고 한다. 망명신청이 받아들여졌다가 번복되었다. 세 자녀의 나이는 21, 19, 14세라고 한다. 어린이가 5년 이상 거주할 경우 특별 사면 형식으로 그 가족에게 이민자격을 주는 '아동 사면(kinderpardon)'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탐라지안 씨 가족은 지난 9월 출국할 것을 통보받았다.

네덜란드는 2017년 현재 인구가 1천7백만여 명이 다. 유엔 난민기구(UNHCR) 통계에 의하면 2017년 현재 네덜란드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103,860명, 망명신청자는 5,818명이다. 난민이 수만, 수십만명 몰려든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스 등에 비해 네덜란드가 받아들인 난민 숫자가 적다. 그렇다 해도 당사 탐라지안씨 가족처럼 강제출국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경우가 400건이라고 한다. 다른 유럽 나라들처럼 네덜란드도 이민의 벽을 점점 높이고 있다.

법적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위해 교회가 피난처가 되어준 예가 더러 있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가까이 있는 에리조나 주 투손 시 사우스사이드 장로교회 목사였던 존 파이프 목사는 1980년대에 '성소 운동(Sanctuary Movement)'을 이끌었다. 당시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에서 내전을 피해 미국으로 몰려든 난민을 위해 500여 개 교회가 가까이 피난처가 되었다. 중미에 대한 미 정부 정책에 반대한 시민불복종 운동 시에 자유와 평등의 법 정신을 따른 결단이었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에 반대하여 지금까지도 변면 히 이어지고 있는 운동이다.

베델교회는 정부의 입장과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 사이에서 달레마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다섯 살짜리가 와서 9년을 살고 14살이 됐으면 거기가 고향이며 집이다. 갈 곳 없는 이 가족이 지금으로선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집('벨 열')에서 보호받고 있다.

이 릴레이 예배가 올릴 큰 이유는 무엇보다 교회를 하나로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헤이그 베델교회가 속한 교단 목회자들뿐 아니라 전통이 다르고 신학이 다른 개신교와 가톨릭 할 것 없이 다양한 네덜란드 교회 목회자들이 예배를 이어가기 위해 함께 하고 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생명을 중시하는 보수와 평등을 중시하는 진보의 구별이 무의미해졌다. 다른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연결 지을 수 있는 작은 지점을 통해 손잡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다.

크리스체너티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악셀 위케(Axel Wicke) 베델교회 목사는 "이 교회 피난처는 가장 기초적인 연민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이어주며 경계를 부서뜨리고 있다는 것을 되려 저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종교인들은 아니든 헤이그 시민도 교회 이웃도 인터넷에서 뉴스를 접한 사람들도 관심을 두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바라보고 있다.

교회 공간의 쓰임을 비롯해 여러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난민 문제를 말랑말랑한 감성으로만 다가가 수는 없다. 당장 이웃 나라 덴마크에선 정부가 우파 덴마크인민당이 합의한 바에 따라 앞으로 망명 신청한 사람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외딴 섬으로 보내겠다고 했다.

헤이그 베델교회가 언제까지 예배를 이어갈지 알 수 없다. 다만 예배가 이어지는 동안만큼 틈을 벌려, 추방당할 위기에 있는 가족 하루라도 신변 안전을 보장받고 그러는 동안 물질적으로 이들의 법적 지위에 대해 조율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벌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베델교회가 어려움에 빠진 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교회가 낳은 가장 대표적 신학자는 누구일까? 대부분 주저하지 않고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를 꼽을 것이다.

아퀴나스는 1225년에 이탈리아에서 태어났으며, 아주 어려서부터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자라났다. 15세에 나폴리 대학에 입학한 뒤, 그의 사상에 큰 변화가 생겼다.

그 후 20세가 되기 직전, 엄밀한 논쟁과 분석의 방식을 선호하였던 도미니크 수도회에 입회하였다. 그는 사제 서품을 받은 뒤 1256년에 파리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아퀴나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대학을 중심으로 '자연사상'을 강조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대학을 중심으로 널리 퍼진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사상을 급할 길이 없었다. 결국 1255년 파리 대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을 교과서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나아가서 철학학부를 신학부로부터 독립하여 발전해 나갈 수도도록 조치하였다.

새로운 고민-신앙과 이성의 조화

아퀴나스의 주된 고민은 교회의 전통적 신학과 새로운 철학 방법론을 조화하는 일이었다. 즉 그는 신앙과 이성이 협력하여 새로운 신학의 틀을 만들어 내는 결코 쉽지 않은 작업에 몰두하였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Augustine of Hippo, 354-430)이다. 그는 만일 어떤 것이 참이라면 그 진리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 뿐 아니다. 동방교회의 마지막 교부라 불리는 다메섹의 요한(John of Danascus, 676-749년)도, 모든 사람들에

게 신의 존재가 자연적으로 심겨져 있다고 하였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애써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11세기 신학자였던 캔터베리의 안섬(Anselm of Canterbury, 1033-1109) 역시 이와 유사한 신학적 사상을 가졌다. 존재론적 증명이란 불리는 그의 사상은, 신이라는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면 자명한 명제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다.

나님의 창조와 기적을 인정하는 신앙의 소유자였다.

자연적 정의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지난 매우 중요한 원리를 받아들였다. 그것은 자연적 정의 이론으로서, 인간의 특정한 행동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자연적 기준이 모든 사물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세교회 1000년 - 어둠에 잠긴 구속역사의 현장(25)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사상을 전통신학에 접목 스콜라철학 완성 하나님 존재 확증위해 반드시 그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고 확신

나님은 단순히 칭호로만 존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실제 속에서도 동시에 존재하는 분이라고 주장하였다.

아퀴나스는 이런 전통적 사고를 가진 신학자들이 증명하는 하나님을 부정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단지 그 하나님을 신앙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정상적인 이성을 갖춘 모든 성인들은 자연을 대할 때, 자연적 정의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아퀴나스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확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존재를 증

이상학(Metaphysics), 즉 존재의 근본 또는 근원을 연구하는 학문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그는 인간은 자연을 출발점으로 삼아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만일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함에 있어서 순수한 이성적 추론을 사용하였던 안섬과 달리, 아퀴나스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증거를 그 근거로 삼으려 하였다.

5가지 증명 방법

명'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움직여지는 모든 것에 대하여, 반드시 한 다른 것에 의하여 움직인다고 주장하였다. 그 자체가 본래부터 능동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물이 원인이 되려면, 그 전에 무엇인가 먼저 존재해야 한다. 중속 능동인들 모두가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관점으로 본질에 영향을 준 원인을 살피게 될 때, 우리는 관찰이 불가능한 근본 원인이 있다는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이 존재는 '원인이 없는 원인'이며, 그가 바로 하나님이다.

세 번째 방법은, '가능성과 필연성'으로부터의 증명이다. 이 세상의 일을 관찰하면, 본질에 있어서 매우 우연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즉, 세계 속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생성과 소멸이 가능하다. 그러나 과거 어느 시점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 필연적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다.

네 번째 방법은, '자연의 위계에서 관찰되는 사물의 단계에 근거하는 증명'이다. 사물들 가운데는 완전성의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다양한 것들이 있다.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더 좋은 것과 나쁜 것 또는 더 큰 것과 작은 것 등으로 등급을 매길 수 있다.

즉, 그 가치와 완성도에 있어서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완전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다.

다섯 번째 것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질서와 조화에 근거하는 증명'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목적에 의해 작용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식을 갖지 않는 어떤 것, 목적 때문에 작용하는 자연 물체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은 특별한 질서에 따라 목적을 향해 움직이게 된다.

즉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은 세계의 질서를 설계하여 차별하게 그 목적에 이르도록 모든 일을 이끄는 완전한 지성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끄는 지적 설계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 즉 전통 신학과 새로운 철학을 접목시키려 하였다. 비록 그는 신앙이 진리를 찾아낸다는 신앙의 전통, 즉 신앙을 이성보다 두려는 전통적 시도를 거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자연법을 중시하며, 이성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새로운 학문의 길을 열게 됨으로서, 후대에 신앙보다 이성을 우위에 두는 새로운 전통을 여는 길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covenantcho@yahoo.com

'신학대전' '대이교도대전'에서 자연적 경험 통해 하나님 존재 증명 제시 후대에 신앙보다 이성 우위 두는 새로운 전통 여는 길 제공하기도

면서도 이성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그 결과, 그는 자연은 이성을 통해 탐구할 대상이라고 주장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사상을 전통 신학에 접목시킴으로써 중세 스콜라 철학을 완성하게 되었다.

비록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받아들였지만, 그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자연 세계는 스스로 완성된 것이지만, 어떤 절대자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자연 세계에서는 어떤 일도 자연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반해 아퀴나스는 성경이 증거 하는 하

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이성을 사용하여 자연을 올바로 살피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증거들이다. 우리 눈앞에 있는 진리들을 근거로 그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퀴나스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자명하게 알 수 있는 직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거부한다. 그 대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부터 유래된 형

아퀴나스는 그의 저서 '신학대전'과 '대이교도대전'에서 자연적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방법, '운동으로부터의 증명'이다. 이 세상이 있는 모든 것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런데 움직이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의존하여 움직이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이 '부동의 원동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다른 것에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 움직이는 자이다.

두 번째 방법은, '능동인으로부터의 증

Worldwide church directory with logos and contact info for various churches like 동부(NY, NJ)교회, 뉴욕센터교회, etc.



성경도 신앙 (68) 교회와 국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 제일교회)

4. 국가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경의 관점

교회 역사에 있어 국가와 그리스도의 관계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많은 실수를 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더 이상 이 세상에 살게 관계가 없으며, 이런저런 인간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라 그리스도인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인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1:9, 10)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는 자들로 자처하지 말아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내 자신의 영혼과 그 영혼의 계발만이 문제가 된다”

권세 안에 있다. 주님께서는 정말 기이한 방식으로 이미 세계를 통제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들의 영혼을 계발하기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는 자들로 자처하지 말아야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문제가 되지 않고, 오직 내 자신의 영혼과 그 영혼의 계발만이 문제가 된다”

타락해가는 이 세계도 하나님의 세계... 정부 개념을 세우심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인간 구원 뿐 아니라 전 우주에 적용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모든 의미에서 세상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연 질서’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제도에서 면제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믿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구주가 되실 뿐 아니라, 우주의 주님도 되신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을 너무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 서만 본 나머지, 신약의 가르침의 위대함과 영광 중 많은 부분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행복하게 만드는 것쯤으로 축소시키거나,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는 것만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구원을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된다. 보통 속임수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그런 점에서 일관성이 없이 살아간다.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하고, 똑 같이 먹고 살아야 하며, 생각 속에서조차 인생을 결코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사람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말인가? 결코 아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학습한 것뿐이다. 그리스도인마저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지, 사람이 살다보니 점점 진화하고 그렇게 살게 되고 정치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은 진화론적 정치관일 뿐이다. 이런 경우에 대해 생각해 내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험과 오류의 결과로 진화되어 왔다는 그릇된 주장에 오여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원리들이 성경에 이미 전개되어 있다. 물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모든 개개 법칙이나 모든 나쁜 통치자도 필연적으로 하나님에 세우셨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사도는 정부와 그 법과 질서에 대한 전체 개념에 관해 관심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사도스는 어떤 특별한 정부 형태가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말하는

1) 그리스도인의 포괄적인 관점 모든 것이 타락했다는 사실이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임을 중단시키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온 세상을 지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마 5:45)라고 말씀하심으로 분명하게 드러낸다. 죄 때문에 세상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세상과 국가에 대해 긍정적이어야 한다. 오히려 세상을 회복시키되 세상의 본래의 조건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회복시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인간의 구원 뿐 아니라, 전 우주에 적용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전 우주를 구속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전 우주에 대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

2) 국가와 정부에 대한 관점 정립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국가관을 정립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그런 문제를 다루지 못하면 성경적인 삶에서 실패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 문제도 잘못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국가와 정부에 대한 관점도 분명해야 한다. 가첫째로 무엇보다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사실을 믿어야 한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롬13:1)이다. 고로 국가와 정부, 행정관들은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사람이 동물적인 존재에서 진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행사와 활동의 결과물이다.

것이 아니라, 정부라는 개념이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 군왕제나 귀족정치 제도가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또 통치자는 황제들뿐이어야 한다는 것도 말하지 않는다. 또 민주주의만이 정부의 오직 유일한 바른 형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소수의 몇 사람이 하는 독재정치를 하는 과도정체가 옳다고 말할 수도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정부가 존재하고 법이 있고 질서가 있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뿐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제임스 1세는 “왕들이 신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왕권신수설), 그러나 그의 주장에 대해 성경은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공화제가 나쁘거나 바르거나 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사도는 다만 정부가 있고 헌법으로 정해진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공화정 정부가 있을 수 있다. 또 왕이나 황제가 통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나라나 시대마다 어떤 정부 형태든지 나타날 수 있다.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악녀 이세벨

사람마다 자기만의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 자연적인 기질이 태어난 환경에 길들여져 자신의 독특한 삶의 습관이 생긴다. 오랜 세월 굳어진 삶의 습관의 열매가 각자의 성품이다.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길들여져 간다. 다른 사람들을 나에게 맞추어 길들이고, 또한 나도 남에게 길들여진다. 꼭 같은 환경일지라도 각자의 선택의 여지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에스다를 섬기는 여제사장 이세벨은 대단한 여걸이다. 유약하고 게으른 아합왕과 정략 결혼한다. 성을 무기로 아합왕을 세상 연락에 빠지도록 애완용 동물로 타락시키고는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자신의 만족을 위해 손안에 거머쥔다. 양심을 마비하는 온갖 추악한 죄악, 권모술수가 당당한 자신의 종교를 이스라엘의 종교로 대체하여 완전히 이스라엘을 무법천지 상태로 타락시키려 든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버리는 길에 기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저가 과연 아합을 진정으로 사랑했는가? 아니면 자신의 영화의 도구로 이용했는가? 우상숭배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극대의 이기주의이다. 아합은 아내의 치마폭에 모든 왕의 다스리는 책임의 권리를 포기하고 게으르게 자신의 안일만을 쟁긴다. 나뭇의 포도원이 탐났을 때도 비겁하게 아내의 악한 모략을 따라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죄를 만천하에 범한다. 중상모략으로 나뭇을 돌로 쳐 죽이고 빼앗은 밭을 쥐어주는 악행에 과감한 아내를 같이 신라하는 아합이다. 세상에 아내를 악녀로 만드는 못난 사내, 백성의 피를 빼는 악한 흡혈귀 군주가 아니던가? 이세벨은 성을 무기로 남편을 손에 넣고 평생 제 맘대로 휘두르며 살다간 여인이다. 그러나 과연 그녀는 과연 행복했는가? 욕망은 바닥 없는 항아리와 같다. 아무리 부은들 바닥이 없으니 무엇인들 담을 수가 있는가? 계속해서 부어 넣으니 걸로 보기에 무엇인가 풍성할 듯 하나 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 인생이다. 손에 쥘수록 점점 더 목이 마른다. 유약하고 게으르고 자기만 위하는 아합이 걸로 이 세 여자를 기쁘게 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뭇의 밭이 탐이나 고민하는 아합을 보며 얼마나 저를 경멸하며 혐오감이 올라왔겠는가? 도무지 납자다운 구석이라곤 보이지 않는 남편 아합이다. 왕이란 지위가 아니었다면 천번 만번 헌신짝처럼 버렸을 비굴한 사내 아닌가? 제 맘대로 휘두르는 맛에 부지런히 나뭇대로 헌신한 여인 이세벨과 편한 맛에 자신의 할 일을 다 아내의 손에 무책임하게 넘기고 산 악하고 게으른 종 아합왕이다. 저들은 서로의 약점을 이용할만한 환경적인 강점과 보완하여 철저하게 서로를 자신을 위해 이용했던 사랑이 없던 부부의 비극적 모델이다. 제 아무리 대단한 여걸이라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헌신한, 결국 다가서면 저 멀리 달아나 버리는 무지개와 같이 자신을 포함한 그 어느 누구도 세우지 못하고 그저 파괴하는 불행한 인생일 뿐이다. 요즘 한국 정세를 바라보며 너무도 많은 이세벨과 아합들이 즐비한 듯 보여 고생하는 국민들이 안쓰러워 기도가 절로 나온다. 주님! 한국을 이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지켜주소서.

heenlee55@hanmail.net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Tel: (206)579-7576, Fax: (702)257-919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Tel: (610)222-0691, 267-471-7777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Tel: (508)435-4579, Fax: (704)529-0900	살롱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Tel: (704)877-6642, Fax: (704)529-090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N.Y.: Tel: (718)886-4400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Tel: (501)920-9049, Fax: (501)425-5178	앵커리지베를린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엘파소열린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Tel: (915)755-1490, Fax: (915)751-4365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N.Y.: Tel: (718)886-4400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현 Tel: (254)535-1842(H), Fax: (254)501-4933(C)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Tel: (253)536-8675, Fax: (253)888-9249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N.Y.: Tel: (718)886-440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N.Y.: Tel: (718)886-4400



목회서신

평범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



여승훈 목사 (베이크스펠드 아름다운교회)

얼마 전 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도로를 운전해 가다가 와우! 하는 약간의 탄성 소리를 냈던 적이 있다. 이유는 너무나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어 있는 한 그루 나무의 단풍잎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림 그리는 화가가 과연 저런 색깔을 물감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리고 잠깐 눈을 돌려서 옆에 있는 다른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그 나무의 잎들도 나름대로 단풍

색깔을 내고 있었다. 그런데 왜 그 나무들의 단풍잎에 대해서는 시선이 머물지 않았을까? 단풍잎의 색깔이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특별하지 않은 색깔의 단풍잎을 가진 수많은 나무들을 그냥 스쳐 지나왔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특별하게 아름다운 단풍잎의 색깔을 가진 한그루 나무와 특별하지 않은 그저 밋밋한 단풍잎의 색깔을 가진 나무들의 차이는 무엇

일까? 하나님의 손길이 특별히 머무는 나무는 단풍잎의 색깔이 특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특별하게 머물지 않는 나무는 단풍잎의 색깔이 밋밋한 것일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특별한 색깔을 내는 단풍잎이나 밋밋한 색깔을 내는 단풍잎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손길이 머문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밋밋한 색깔을 내는 단풍잎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린다.

오늘날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역사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특별하게 보이는 것에만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길은 특별하게 보이는 일이나 평범한 일상의 일이나 동일하게 머문다. 특별하게 보이는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특별하게 머문다는 생각은 오늘날 성공 지상주의로 치닫는 세속 문화가 낳은 산물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면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한다. 어거스틴은 죄의 근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사랑을 쏟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특별한 것 자체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주된 흐름은 사람들이 특별한 것을 추구해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특별함을 추구하는 삶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특별함을 추구하는 삶의 내면에는 특별함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일상의 평범한 삶에 대해서 감사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다. 일상의 평범한 삶에 대한 흥미를 잃어간다는 것이다. 단, 한 순간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순간은 없다. 단풍잎이 아름다운 것은 색깔 자체로 인하여 아름답기도 하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므로 더욱 아름다운 것이다. 밋밋해 보이는 단풍잎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면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다. 현재 살아가는 삶이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삶에 대한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만약 그렇다면 평범한 일상의 삶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라. 그

리스도는 이 땅에서 평범 그 이하의 삶을 사신분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탁월한 본성을 지니셨지만 자기를 비워 낮고 낮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다. 탁월하신 하나님으로서 평범한 사람으로 오셔서 평범 그 이하의 삶을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삶을 재설정해 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 이하의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 속에서 오직 한 가지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 일상의 평범한 삶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면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누릴 것이다. 특별함에 매어 달리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고 평범한 일상의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감사와 기쁨과 영원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누리라.



남가주교회음악협회 관계자들이 총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남가주교회음악협 전현미 회장 유임 정기총회...부회장에 강민석 씨 선출

남가주교회음악협회가 8일 오후 옹공 식당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회장에 전현미 회장을 유임했으며 부회장에 강민석 씨를 선임했다. 전현미 회장은 "하나님께서 회장님이 되셔서 2018년도 남가주 한인 교회음악협회를 이끌어가는 마

음으로 교회음악협회가 활동해왔다"며 "은혜롭게 2018년도 본 협회 활동이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부족한 제가 다시 2019년도 회장을 연임하게 됐다. 새해에도 주님께서 회장이 되셔서

협회에서 하는 사역에 큰 축복으로 인도해주시길 줄 믿고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현미 회장 사회로 시작된 총회는 회원점명, 개회선언 했다. 강민석 총무가 사임보고 했으며 김혜정 회계가 회계 보고했다. 이어 회장과 부회장 선출이 있었으며 회의록 낭독 후 전현미 회장의 폐회선언으로 총회를 마쳤다. 전현미 회장은 UCLA 작곡과와 동 대학원에서 지휘를 전공했으며 2013년 50여명의 합창단과 베들레헴 국제크리스마스 페스티벌에 참가했다. 2016년 이태리 베로나에서 열리는 30년 이상된 작곡 및 합창 경연대회('Italy National Composition & Choral Competition')에서 최초로 아시아인 심사위원으로 위촉받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또한 '잔양대원을 찾아가는 지역 열린 세미나' 창시자 및 강사로 활동하고 현재는 라구나힐스교회 지휘자로 섬기고 있다. (박준호 기자)



ANC온누리교회는 월드미션대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ANC온누리교회 이웃사랑 나눔 프로젝트 일환 월드미션대 아프리카 장학생에 장학금 전달

ANC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가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에게 아프리카 학생 장학

금을 전달했다. 지난 12월 5일 ANC 온누리교회 박성호 총괄목사와 송정신 장학위

원회 장로가 월드미션대학교를 방문해 임성진 총장에게 아프리카 학생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ANC 온누리교회에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행20:36)는 말씀에 따라 실시한 이웃사랑 나눔 프로젝트인 열두광주리 캠페인(12 BASKET Giving Campaign)을 통해 모아진 성금의 일부를 월드미션대학교 아프리카 학생 장학금으로 기부한 것이다. 월드미션대학교 측은 아프리카 복음 전도에 앞장 선 아프리카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ANC 온누리교회 장학금 후원을 통해 동참함으로써, 본교에서 온라인으로 신학교육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말라위 학생들에게 크나큰 격려가 됐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월드미션대학교)



아주사퍼시픽신학교 종강예배 및 사은회에서 졸업생들이 교수들에게 선물증정하고 있다

"사명보다 그 어떤 것도 앞세우지 말라" 아주사퍼시픽신학교 종강예배 및 사은회

아주사퍼시픽신학교 코리언프로그래밍(디렉터 변명해 교수)은 종강예배 및 사은회를 4일 오후 4시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LA리저널센터(디렉터 단 바른 박사)에서 열었다. 졸업예정자인 소피아백 전도사 사회로 열린 1부 예배는 김수영 교수(본교 설교학 교수, His교회)가 '사명보다 앞선 것'(요21:15-17)이

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수영 교수는 "내가 주님을 위해 일을 하고자 할때 자칫 잘못하면 주님이 배제된 사역이 될 수 있기에 주님께서 여러분 위해 일하셔야 한다"며 "내가 주어가 되면 업적 많이 세우고 유능하게 할 수 있지만 망하기 쉽다. 그러나 주께서 일하신다면 사역의 사이즈와 유명도 그리고 실력과 상관없이 성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내가 주님으로 하여금 나를 위해 일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본문은 사랑의 정도를 말하기 위해 사랑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 같다. 사랑의 대화보다 사랑을 앞세우지 말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우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때 사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중기 목사(본교 실천신학 교수, 흥현선교회) 축도에 이어 열린 2부 사은회에서 변명해 교수는 "졸업생들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자들이라고 추적이 되길 바란다. 어디가든 사역할 때 아주사 동문으로 부끄럼 없이 학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는 동문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시편 26편 7절을 낭독하고 졸업생들을 치하했다. 이어 본교 교수들이 졸업생들을 위한 안수기도를 했으며, 졸업생들이 교수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3부 순서는 만찬의 시간을 갖고 졸업생들과 교수들이 친교했다. (박준호 기자)



라크마 주회 패밀리나이트 음악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 우측위 네모 안은 이날 라크마 장학생 선발자들과 최승호 단장, 그리고 윤임상 교수

장학생 선발자 장성, 김유은, 켈들오 협연 라크마 크리스마스 패밀리나이트 성황

라크마(회장 최승호 음악감독 윤임상 교수) 주회 크리스마스 패밀리나이트 음악회가 9일 오후 7시 한길교회(담임 박찬섭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음악회는 라크마 챔버오케스트라와 피아니어가 무대에 올라 공연했으며 소프라노 신선미, 테너 오위영 목사가 출연해 아름다운 공연을 펼쳤다. 이날 라크마 장학생 선발자들의 무대도 열렸는데 윤임상 음악감독의 지휘로 협연했다. 올해 영예의 1등 수상자는 피아

니스트 장성(Sung Chang)으로 이미 피아노 마니아들 사이에서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는 중견 피아니스트다. 2등은 바이올리니스트 김유은 씨로 USC에서 아티스틱디플로마를 마치고 동부 CUNY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1, 3악장을 연주했다. 3등을 차지한 켈리스트 켈들오는 12학년생으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재능 있는 학생으로 쇼스타코비치 첼로 협주곡 1악장을 연주했다. 1등 수상자 장성 씨는 "피아니스트인 어머니 밑에서 3살부터 피아노를 배웠다"며 "독일에서 유학할 땐 피아노를 왜 쳐야하는지를 배웠으며 미국으로 건너와서는 그동안 배운 것들을 어떻게 사람들과 나눠야 하는지 고민하며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는 전 출연자가 켈들의 메시아 할렐루야를 함께 공연하며 마쳤다. (박준호 기자)



파이어크루세이드 12월집회에서 가스이미지가 공연하고 있다

'예수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주제 파이어크루세이드 12월 집회 성황

파이어크루세이드(대표 정기정 목사) 12월 집회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라는 주제로 부에나파에 위치한 소스몰(The

Source) 광장에서 8일 오후 5시 성황리에 열렸다. 찬양사역자 비키리 자매와 매튜 김 형제(남가주샘물교회) 사회로

시작된 이날 집회는 가스이미지, 김한나(CCM 사역자), This Ability 오케스트라가 출연해 찬양과 율동 그리고 아름다운 선율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이날 더소스몰에 모여 든 많은 이들에게 찬양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됐다. 아울러 비키리 자매와 매튜 형제가 듀엣으로 찬양을 불렀다. 또한 정기정 목사는 "집회가 열리기 전날 비가 많이 와서 걱정했다"며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허락해주시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말했다. 파이어크루세이드는 2012년 2월 6일 첫 번째 집회를 시작으로 중소형교회들이 모여 무료헌원과 연합예배를 통해 개 교회들의 부흥을 이끈다는 취지로 사역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송년회 및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임기 2년 임원단 유임, 비전선포문 등 발표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송년회 및 정기총회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회장 김희창 목사) 송년회 및 정기총회가 8일 오전 11시 영생교회(담임 김해성 목사)에서 열렸다. 1부 송년감사예배는 차기 부회장의 사회로 샘 신 목사 기도후 한국 공군근무출신인 오정택 목사(산불피해지역의 파우전옥스 주

의교회 담임)가 '위기와 위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2부 회의는 회장 김희창 목사의 인도로 사업 및 회계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임원들은 2년 임기이기에 그대로 유임됐다. 본회는 재향군인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면인 정채성 비전선포문,

애국선문, 애국특별중보기도회, 애국인 특별복귀집회, 조국수호집회, 광복기념 집회, 특별히 여호와 의증인 양심적 판결에 대한 안보우려와 공평성 국방의무 사명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설교해준 샘신 목사, 김해성 목사, 이정근 목사, 고남철 목사, 서승원 목사, 문대룡 목사, 김기동 목사, 강태광 목사, 안신기 목사, 서승원 목사, 오정택 목사, 김희창 목사 등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날 한국에서 제작한 기독교인 상징성을 새긴 기념 현대를 50여 회원들에게 배부함으로 진리사수 조국사수의 의지를 갖고 사용하기를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애국가를 부른 후 3부 만찬을 가지며 친교를 다졌다. 한편 신년하례식은 2019년 1월 12일(토) 오전 11시 영생장로교회에서 갖는다. ▲문의: (213)268-9367 (기사제공: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동부교계 기사판



2019년 KAPC 목사학력 및 자격고시 일정 공고

2019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목사학력 및 자격고시 일정이 공고됐다. 응시자격은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 인준 정규 신학교 M.Div 졸업자나 2019년 6월 이전 졸업 예정자로 고시는 2019년 5월 17일(금)-20(월) 총회장소(HILTON LA AIRPORT)에서 치르며, 필기고시(교회사, 조직신학, 미국장로교회사, 헌법)와 제출고시(구약주해, 신약주해, 논문, 설교원고)를 내용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응시서류는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2019년 6월 이전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이력서(사진 2장)와 고시료 150달러,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메일 jhanrev@gmail.com

▲문의: 조웅철 목사(702-296-9193), 한재현 목사(831-920-7043)

새찬양 뮤지컬 캠프

새찬양 뮤지컬 캠프가 "Let Us Have Fun" 주제로 12월 28일(금)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29일(토)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열린다. 총 진행 음악감독은 이선경 지휘자. 장소는 뉴욕친구교회(담임 목사)이며 3-8학년을 대상으로 20명 선착순 접수. 참가비는 일인당 120달러다. 본 뮤지컬 캠프는 영어로 진행된다.

▲문의: (917)553-4203 배종은 권사

2019 신년축복성회 및 목회자 컨퍼런스

이상목 목사(Zoe Ministries USA 대표, 이어리한인장로교회 담임)를 강사로 하는 2019 신년축복성회가 1월 11일(금)부터 13일(주일)까지 "성령과 내 영혼"이라는 주제로 매릴랜드 시온감리교회/도시기도원(담임 최현림 목사)에서 열린다. 또한 이상목 목사를 강사로 목회자 영성컨퍼런스가 2019년 1월 14일(월) 오후 5시부터 15일(화) 오후 5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성령과 거룩"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컨퍼런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문의: (443)306-3876 최현림 목사

퀸즈장로교회 성탄축하 찬양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성탄 절기를 맞아 오는 16일(주일) 오후 4시 성탄 축하 찬양제를 열고 찬양제 후에 저녁만찬을 갖는다. 또 21일(금)에는 양로원 방문, 성탄절인 25일에는 성탄축하예배를 드리고 26일(수)에는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를 드린다.

▲문의: (718)886-4040

영상편집 사역자 청빙

뉴욕어린양교회(담임 박윤선 목사)가 영상 편집을 위한 사역자를 청빙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사진포함)를 교회(69-38 47ave, woodside, NY 11377)로 보내거나 이메일(jcb8112@gmail.com)로 보내면 된다.

▲문의: (718)899-8309

플타임 부목사 청빙

시카고 근교에 위치한 레이크뷰 언약교회(담임 강민수 목사, ECC교단)가 한어회중 플타임 부목사를 청빙한다. 담당사역은 설교, 제자훈련, 청년회, 행정이며 지원자격은 정규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고 말씀과 제자훈련사역에 열정과 은사가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 구사자. 제출서류는 이력서(가족사진포함), 신앙고백서, 목사안수 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설교 영상 혹은 음성 파일, 추천서 3통, 접수마감은 12월 31일. 이메일(info@lakeviewkc.org)로 보내면 된다.

▲문의: (847)272-9522



KCBN 29주년 후원 감사의 밤을 마치고 순서말은 이와 봉사자들이 기념 촬영 했다.

학자의 혀로 복음전파 사명 다하라

KCBN 29주년 후원 감사의 밤 성료

미주기독교방송국(KCBN, 사장/이사장 윤세웅 목사)이 29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저녁 6시 후원 감사의 밤을 가졌다.

대동연회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윤세웅 목사는 직원들과 후원자들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다"며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 성화되는 과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1부 예배는 박마이클 목사 인도로 개회기도 최고설 목사, 성경봉독 김영호 장로, 설교 박상일 목사, 헌금기도 박태규 목사, 헌금축송 윌드밀알찬장단, 축사 양민석 뉴욕 교협부회장, 홍인석 뉴저지교협 회장, 윤정신 뉴욕중앙일보사장, 방송사역과 직원 소개, 축도 방지각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박상일 목사(뉴욕남교회 담임)

는 "학자의 혀"(사50:4-5)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학자의 혀를 가진 사람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이며 학자의 혀를 주셔야 공평한 자를 도울 수 있다"며 "말의 흥수 시대에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고 말한 대로 행동하는 명품 기독교인들이 되어 한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KCBN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학자의 혀를 가지고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부는 조순재 방송부장과 오영아 편성부장의 사회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10년 이상 봉사한 15명에게 감사장과 선물을 증정했다.

3부 만찬은 한문수 목사의 기도 후 시작됐으며 윤세웅 목사의 감사 인사와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유원정 기자)

성도의 길을 가는 목사회 되라

뉴욕목사회 제47회기 성탄축하예배 및 이취임식

"존경받는 목사회, 서로 격려하는 목사회"라는 표어로 출발한 뉴욕목사회 제 47회기 가 지난 12월 10일 성탄축하예배 및 이취임식을 가졌다.

오전 10시 뉴욕효신장로교회에서 열린 이취임식에서 회장 박태규 목사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인용하며 목사회는 전문직으로 주신 '우선적 권위'에 대해 언급하며 "존경을 보수로 받아야 한다"며 "예의, 상식,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회원들을 소중히 여기며 존경하며 설 화합하는 소통의 장을 열어가겠다"고 취임사를 전했다.

이임하는 문석호 목사는 "46회기



뉴욕목사회 제47회기 성탄축하예배 및 이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를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과 동역해 준 회원, 임원들에게 감사한다"며

"47회기는 46회기를 뛰어넘는 회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1부 예배는 이준성 목사 인도로 기도 이희선 목사, 성경봉독 김희숙 목사, 특송 아이노스 중창단, 설교 신석환 목사, 헌금축복기도 이성현 목사, 축시낭송 조의호 목사, 헌금 및 축복송 에이레네 찬양단, 축도 방지각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신석환 목사(자문위원)는 "성도의 길"(골1:9-14)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목사와 성도는 같은 것이

같은 길을 가는 것"이라며 "성도(구별된 사람)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믿는 자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유원정 기자)



퀸즈한인교회 제 4대 담임목사 취임감사예배를 마치고 김바나바 목사부부와 시무장로부부들이 기념촬영 했다.

주님 심장 갖고 앞을 보고 옆을 살피겠다...

퀸즈한인교회 제4대 김바나바 목사 취임감사예배

퀸즈한인교회가 지난 12월 9일 저녁 5시 제 4대 담임 김바나바 목사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김바나바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래 기도 해준 성도들께 감사하다"며 "빌립 보서 말씀처럼 앞을 보고 나갈 때는 주님의 심장을 갖고 나가고, 주변을 바라볼 때는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살피고 함께 나아가겠다. 하나님이 주신 삶속에서 마지막으 로 하고 싶은 것은 그분은 흥해야 겠고 나는 쇠해야 한다. 평생 목회를 통해 그분께서 흥하고 부족한 중은 쇠하는 목회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1부는 이옥주 목사 인도로 퀸즈한인교회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돼 기도 정준성 목사(뉴욕주사랑장로교회 담임), 찬양 퀸즈한인교회 연합찬양대, 말씀 김재열 목사(뉴욕센트럴교회 담임), 특주 한예진 바이올리니스트 순서로 진행됐다.

김재열 목사는 실버미션을 15년간 해오면서 퀸즈한인교회와의 인연을 설명하며 "목사로 세우셨으니"(렘4:11-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퀸즈한인교회가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 이제 잘 되는 일밖에 없다"며 "부흥성장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목사는 만능선수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하고 "김바나바 목사님을 퀸즈한인교회 담임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세우셨나? 첫째, 재력과 훈련을 통해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둘째, 봉사의 일을 하도록"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본 신앙과 회개, 말씀순종, 훈련과 봉사 등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됨으로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로 담임목사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성숙한 퀸즈한인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부는 축사 박태규 뉴욕목사회 회장, 권면(목사에게) 한재홍 목사, 권면(성도에게) 박형은 목사(뉴저지초대교회), 축가 백승현, 약력소개 박인섭 장로, 광고 김성수 장로, 담사 김바나바 담임목사, 축도 안창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박태규 목사는 "예수심장을 달고 뉴욕에 오셨다"며 "교회부흥이 기대된다"고 축사했다.

임시당회장을 맡았던 한재홍 목사는 △예수심장 가지고 환경을 이기라 △올은 목자로 생명까지 버리라 △자기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라 △사랑은 약한 자에게 더하라 등의 권면을 하고 말씀의 승계를 위해 김바나바 목사에게 목사가운을 입혀줬다.

KPM을 통해 퀸즈한인교회와 선교동역을 하고 있는 박형은 목사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성도들에게 축사를 하고 "좋은 교인들이 좋은 목사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만찬기도는 백달영 장로가 했다. 김바나바 목사는 남침례신학교 M. Div, Ph.D(설교학)를 받았으며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부목사, 국제 오웬선교회 파송선교사(북아프리카&중동)로 사역한 바 있다.

(유원정 기자)



뉴욕벧세마네교회 이지용 담임목사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장학금 기증...13명에 총만3천불 전달

뉴욕벧세마네교회 제 3회 열린 음악회

뉴욕벧세마네교회(담임 이지용 목사)가 지난 9일 오후 5시 장학금 기증을 위한 제 3회 열린 음악회를 열고 13명에게 각 1천 달러씩 총 1만3천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지용 목사는 "주님 은혜로 이제 3년이 되면서 뉴욕벧세마네교회가 롱아일랜드에 자리매김 하고 있다. 교육관과 체육관 건축이 내년 상반기에는 성사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주민과 청소년들 그리고 한인 2세가 함께하는 복음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다. 내년 1월 9일 건축을 위한 히어링이 예정돼 있으며, 주민공청회가 끝나면 바로 건축허사를 신청해 건축에 들어갈 것"이라며 "내년에는 새로 건축된 교육관에서 4회 음악회를 개최하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기증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장학금 수여는 1회에서 9명, 2회 10명, 올해는 13명으로 매년 증가

했다. 음악회는 황혜원 성도의 사회로 진행됐다. 1부는 뉴욕첼버오케스트라 연주, 맥스민의 트럼펫 연주, 제시유의 플루트 연주와 소프라노 이희정 솔로, 테너 남상보 솔로, 김신애 클라리넷 연주, 뉴욕수정교회 시온성가대 찬양, 잭키 현의 첼로 반주로 바리톤 이재환 찬양, 바리톤 이재환 찬양으로 진행됐다.

2부는 뉴욕벧세마네교회에 대한 동영상 상영 후 제시유의 플루트 연주, 재키 현과 맥스민 부부의 첼로와 트럼펫 합주, 유안나의 바이올린 연주, 이희정 소프라노 솔로, 이희정과 이재환 듀엣, 뉴욕첼버오케스트라 연주, NYM 콰이어 합창(지휘 제시유), NYM 콰이어와 뉴욕수정교회 연합합창단의 찬양, 뉴욕첼버오케스트라 연주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기사제공: 뉴욕벧세마네교회)

"그가 곧 하나님" 칸타타 초연

뉴욕권사선교합창단 제17회 정기연주회

뉴욕권사선교합창단 제 17회 정기연주회가 12월 9일 오후 6시 하크네시야교회에서 열렸다.

단장 이은숙 권사는 "말씀이 육신이 돼 세상에 오신 독생자 그가 곧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삶, 호흡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닮은 삶을 살고자 다짐한다. 히 세례하신 기도와 사랑으로 만나 되게 하신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 단원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잊을 수 없다"고 감사했다.

1부는 예수님 탄생을 주제로 합창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 성탄절 캐롤들을 편곡해 불렀다. 3부에서

는 이상윤 장로가 작사하고, 김지영 작곡가가 작곡한 칸타타 "그가 곧 하나님"의 7곡이 합창으로 초연됐다(지휘 양재원, 반주 이정현).

바리톤 김천일이 특별출연했으며, 5인조 베델체임버앙상블의 연주, 뉴욕크리스찬유스콰이어(지휘 이학재)가 참여했다.

이날 유희원, 정문자, 유효숙, 안태순, 임병숙 권사 등이 10년 근속 상을 받았다.

칸타타 "그가 곧 하나님" 작사자 이상윤 장로는 폐암 4기로 수술과 힘든 치료 과정 속에 8년이 지났으며 이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

이 장로는 자신의 소망과 감사를



뉴욕권사선교합창단이 정기연주회에서 찬양하고 있다.

묵어 찬양을 쓰고 있다며, 그것이 주님께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25편의 칸타타를 쓰면서 모든 작품에는 반드시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포함된다며 "이는 그분이 내

생명인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기연주회는 전광성 목사의 기도로 시작돼 주영광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기사제공: 뉴욕권사선교합창단)

한국교회총연합 2기 출범

“교계 연합운동 중심 서나” 기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6일 제2회 정기총회를 갖고 이승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김성복(예장고신) 박종철(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총회장을 대표회장으로 하는 2기 사역을 시작했다. 연합운동의 무게중심이 한교총으로 옮겨지는 상황에서 소강국면을 맞은 기구 통합논의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한국교회 연합기구는 크게 4개다. 한교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은 보수 성향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진보 성향을 띤다. 회원교단 수와 활동역량으로 봤을 때 1강(한교총), 1중(NCCK), 2약(한기총, 한기연) 구도다.

한교총은 출범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지만 예장합동 통합 백석대신 고신 합신,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기침 등 29개 주

요 교단이 실질적 연합을 이루고 있다. 1개월 안에 법인 설립을 마치면 본격적인 대사회 장구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NCCK는 민주화 이후 다변화된 상황에서 정체성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채 자금난을 겪고 있다. 게다가 NCCK는 보수교계와 통합논의에 큰 관심이 없는 상태다. ‘예장합동개혁+군소교단’으로 구성된 한기연도 인력과 사무실을 축소할 만큼 사정이 어렵지만 기구통합보다 조직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하성+기침+군소교단’의 한기총은 계파별 정치투쟁을 벌이느라 기구통합은 고사하고 본연의 업무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년간 기구통합은 한교총과 한기연이 추진했다. 하지만 교권의 벽을 넘진 못했다. 지난 10월 양측은 합의서까지 써놓고 인력과 사무실을 합치는 날까지 못 박았다. 하

지만 한기연이 막판에 특정 인사의 자리보전과 수역원의 퇴직금 ‘추가 청구서’를 내밀면서 판을 깬다. 한기연 NCCK 한기총의 통합의사와 의지가 불분명한 만큼 연합 논의는 당분간 소강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변창배 한교총 서기는 “그동안 불필요한 대표회장 선거전, 교권투쟁, 이단·사이버 문제 때문에 연합운동이 파멸을 겪었다”면서 “지리멸렬한 분열을 끝내고 이제는 서로 협력해 대사회, 대정부, 남북통일, 재해구호 등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교총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3·1운동 100주년, 동성애 대책, 반기독교 세력 대응 등을 내년 주요 사업으로 정했다. 이영훈 기하성 총회장은 설교에서 “한국교회는 과거의 분열, 교권·금권투쟁을 통회자복하고 ‘하나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라 복음동일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탈동성애 전문 상담단체 ‘아이미니스트리’ 출범

대표 박진권 선교사... “탈동성애 같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에 있다”

확산되는 동성애 문화를 저지하고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탈동성애 전문 사역단체가 공식 출범했다.

아이미니스트리는 8일 서울 서초구 더크로스처치에서 출범식을 갖고 탈동성애 상담 및 중보기도, 예배사역을 펼치기로 했다.

아이미니스트리 대표는 탈동성애자인 박진권 선교사가 맡으며, 동성애 때문에 고민하는 청소년, 청년, 가족들의 상담사역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박 선교사는 “어린 아이에게 작은 사랑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훨씬 맛있고 큰 사랑을 주는 것”이라면서 “동성애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이치도 이와 같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동성애자들이 느끼게 된다면 동성애 간 성행위라는 잘못된 죄악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나처럼 다른 동성애자들도 탈동성애 할 수 있도록 매주 예배

와 기도모임을 갖고 상담 및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전하겠다”면서 “자아 정체성 혼란을 겪는 이들이 성경의 진리 안에서 회복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탈동성애 사역은 일부 교회와 단체에서 감당해왔다. 그러나 전문성과 실제적인 탈동성애 사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동성애 성행위를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된 후 강력한 성령체현 후 탈동성애를 한 사역자가 전문상담사역을 펼치는 것은 아이미니스트리가 사실상 처음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 선교사의 도움으로 남성 간 성행위를 즐기다가 탈동성애를 한 이모씨가 간증을 했다.

이씨는 “자존감이 낮고 여성스러운 성격에 외롭게 자라났지만 중학교 시절 친구를 통해 포르노와 동성애 간 성행위의 세계에 빠져들었다”면서 “남자친구와 동거하는 상황까지 갔지만 이것을 의심한 가족

들의 추궁 끝에 커밍아웃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선교사의 도움으로 예배와 기도훈련을 받게 됐고 주변 사람들의 돌봄으로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기 시작했다”면서 “물론 중간에 유혹에 넘어지기도 했지만 뜨거운 예배 속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사랑을 체험하게 됐고 주님께서 나의 깊은 내면의 상처까지 만져주셔서 결국 탈동성애를 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아이미니스트리는 탈동성애가 강력한 성령체현과 예배, 신앙공동체 안에서의 훈련과 교제를 통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서울 논현동 연세예스의 원 지하에서 모임을 갖는다.

이 단체는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한국호스피스선교회, 연세수동요양병원, 더크로스처치 등이 후원한다.

민성길(연세대 명예) 길원평(부산대) 제약구(한동대) 교수, 조영길 변호사, 염안섭 이명진 원장, 김지연 약사, 탁수연 상담사가 자문위원을 맡는다.

서울고법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

사랑의교회 “한국교회 역사상 초유의 판결, 종교자유 침해”

서울고법 제37민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5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오 목사의 위임결의가 무효이며 위임목사, 당회장, 담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 목사의 위임결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2003년 10월 오 목사를 서울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 목사는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대법원이 과거 환송한 판결의 취지대로 판시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오 목사가 총신대에 편목으로 편입한 것이 아니라 일반편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즉 오 목사가 미국장로교(PCA) 목사이지만 한국에서 편목과정

이 아닌 일반 편입과정을 이수했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단기 코스를 통해 타 교단 목사나 미국 목사를 영입하는 교계의 관행에 법원이 개입한 셈이다.

사랑의교회는 이에 대해 “이번 판결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교단의 자율성과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와 상충된다”면서 “이는 한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더 나아가 종교단체 모두가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교회는 “법원이 지난 15년간 시무해 온 담임목사에 대해 위임무효라는, 한국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판결을 내렸다”면서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 예장합동 총회가 교단이 정한 절차대로 이행했고 어떤 문제도 없다고 수차례 확인했다. 그럼에도 법원이 교회 제도·교리와 무관하게 독자적인 관점에서 형식 논리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회와 노회는 오 목사가

미국에서 안수 받은 사실을 전제로 청빙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설령 위임 과정에 일부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임을 원점으로 돌릴만한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그 여파는 사랑의교회 뿐만 아니라 교계와 타 종단에도 미칠 전망이다.

미국 목회자나 타 교단 목회자를 영입할 때 편목(정목)과정을 철저히 거쳤는지를 둘러싸고 분란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의 대형교회인 C교회에 오 목사처럼 미국에서 활동하던 한인목회자를 청빙했는데 일부 신도들이 반대하며 똑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종교전문 A변호사는 “성직자인 목사의 자격유무는 교단 헌법의 해석에 달려있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국가가 나서서 종교단체의 내부 결의와 처분을 무효로 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이유가 뭘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재정규정을 만들었다. 정 목사는 “담임목사나 다른 개인이 독단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재정을 어떤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어 고민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예인교회는 재정 운영 기준을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하고 있다. 정 목사는 “회사 등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참고해 만들어 고쳐나가고 있다”며 “월별로 교회 홈페이지에 장부를 공개하고 일정 액수 이상의 비용을 지출해야 할 때는 모든 교인이 모이는 총회를 열어 사용처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다”고 말했다.

성탄 투고 / 마음의 양식



강승호 목사
(펠라 순복음중앙교회)

“세계가 경축하는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인식합시다”

성탄절을 앞두고 세계 각국에서는 성탄절을 축제의 열기로 삼가다 네온사인으로 장식되고 교회들은 색다른 이벤트를 바쁘다. 집집마다 각종 장식으로 얼기 거꾸리고 캐럴송이 울려 퍼지고 있다. 성탄절의 주축은 교회인데 거꾸로 오히려 이방인들이 즐기는 모습을 보게 된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란?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다. 천지의 주관이며 주재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코자 독생자 예수를 가장 비천한 말기유에 탄생시켜 죄악으로 물든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신 인류 역사상 유일 무이한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삼위 일체되신 하나님의 자기 비하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성탄절은 어떠한가? 현대 교회의 대형화와 교권주의, 세습주의로 물질욕, 명예욕, 이성욕에 사로잡혀 건전한 교회들을 매도시키고 무지한 사대니즘에 심취되어 진리를 왜곡하는 거짓 사꾼들로 인해 자신과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버린 진교라는 미명하에 먹고 즐기는 인간 동요양병원, 더크로스처치 등이 후원한다.

목회자나 성도들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교회가 시대의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 숙연하고 겸손히 경건

한 마음으로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말씀 부여잡고 섬김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주 안에서 살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성탄절은 나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고 죄인의 행상을 입으신 하나님 비하 사건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겸손히 경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난한 이웃과 나눔의 성탄절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삶이 영혼행사가 아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성탄절은 오락과 엔조이 하는 죄악과 탈선으로 광분하는 잘못된 관념을 성도들이 깨우치고 선도하여 주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해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언제나 성화된 경건한 삶속에 온 인류에 전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참된 구원의 소식을 큰 소리로 세상을 향해 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가는 세월 속에 시간의 중요성의 시가 생각됩니다. “웃을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는 영혼의 음악입니다. 생각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는 힘의 원천입니다. 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는 영원한 젊음의 원천입니다. 책 읽을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는 지혜의 샘입니다. 기도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랑하고 사랑 받을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입니다. 친구가 될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는 행복여로의 길

입니다. 뭇가 줄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기적이 되기에는 너무 짧은 하루입니다. 일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는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는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찬양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는 가장 즐거운 시간입니다.

“메시아” 찬양은 독일 태생 ‘헨델’(1685-1759)이 지은 합창곡으로 메시아를 부를 때마다 일어나게 된 유래가 있다. 1747년 3월 23일 영국에서 처음 연주되어 할렐루야 합창이 우렁차게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다스리시리라” “왕의 왕 만유의 주” 합창이 시작되자 영국 황제가 별책 자리에서 일어섰다. 왕이 일어나니가 정중 전체가 일어선다 합창이 끝날 때까지 서 있었다. 그리하여 “할렐루야 있었소” 때 일어나는 전통이 생겼다. 그 당시 세계를 장악하고 “유니언 잭”(영국 국기)이 휘날리는 해지는 일이 없다고 할 만큼 세도가 당당했던 대영제국의 국왕도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나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성경은 말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2:14).

gospel_5th@hotmail.com

학교는 ‘젠더 이데올로기’ 수업 중

중·고등학교 교과서 살펴보니... 남녀 외 다른 성 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젠더’ 용어가 들어간 교과서로 수업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계와 시민단체가 헌법과 정부정책에 ‘젠더’를 넣지 말라고 강하게 반대의견을 개진했지만 다음세대가 사용하는 교과서엔 이미 왜곡된 성(性)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국민일보보는 지난 11일 입수한 중학교 ‘도덕’ 7종, ‘기술·가정’ 2종, ‘보건’ 2종,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3종, ‘보건’ 4종 교과서 등엔 다양한 성, 즉 젠더를 옹호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용어가 다수 들어 있었다고 보도했다.

남녀를 ‘젠더’ ‘섹슈얼리티’로 나눠

젠더(gender)는 사회적 성을 뜻한다. 남녀로 구분되는 성(sex)만 고집하지 말고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에 트랜스젠더 등 각자가 마음대로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다원주의적 사고가 깔려 있어 그 범위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 젠더는 사회적 책임이 빠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인 ‘성적 지향’, 성욕을 뜻하는 ‘섹슈얼리티’ 등과 함께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핵심 용어다.

교과서의 중학교 ‘도덕’은 남녀 밖에 없는 성을 생물학적 성, 사회적 성, 성적인 것(sexuality)으로 구분했다. 동아출판사도 ‘도덕’에서 “성은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구분하는 사회문화적 의미의 성, 성과 관련된 욕망이나 태

도, 관습 등을 포함하는 성(sexuality)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고 기술해 놨다. 동화사의 ‘보건’은 표까지 그려 놓고 젠더가 마치 성의 한 부분인 것처럼 묘사했다.

교과서의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는 젠더를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 역할을 의미한다. 이때 생물학적 성이 필연적으로 사회적 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서술했다. 남녀 말고 자신이 생각하는 성적체성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게다가 동성애를 뜻하는 성적 지향까지 집어넣어 생물학적인 남녀가 아닌 제3의 성을 창출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금성출판사도 천재교과서의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와이비엘과 들샘의 고등학교 ‘보건’ 교과서도 젠더용어를 적극 두둔했다. 이런 용어는 최소 2009년부터 교과서에서 등장했다.

동아출판사 관계자는 11일 “젠더가 소수자 등 여러 가지 성을 포괄할 수는 있다”면서 “교과서에 나온 젠더는 생물학적인 ‘남성다움, 여성다움’이라는 사회적·환경적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젠더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이 안에 동성애자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젠더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다. 동성애자들이 과장·왜곡 해석하는 젠더와 우리가 생각하는 젠더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제3의 성을 창설하겠다는 의도”

규정 만들어 용도 구분·투명하게 집행

‘종교인과제’ 관련 목회활동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강원도 한 교회의 부교역자 A씨(30)는 “목회활동비로 소독을 신고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최근 들었다. 그는 “장장 내년 부터 소독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과세 대상과 비과세 대상을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목회활동비는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일부다. 목회자들은 목회활동비를 구제비나 심방비 등 교회 목회와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용도를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다.

각 교회가 어떻게 목회활동비를 정의하고 규정을 만들 수 있을지를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장 최호운 회계사)은 29일 서울 용산구 효창교회(김종원 목사)에서 ‘목회활동비 규정 어떻게 만들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선 교회가 자체적으로 목회활동비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사례가 소개됐다.

정성규 부천 예인교회 목사는 2001년부터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교도소 선교칼럼 (52)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성령의 역사

예배준비를 위해 한 사람씩 재소가 배정되고 매주 이들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얼마나 변화하는지 보면 정말 흥미로웠다. 한번은 피터란 베트남 사람이 있었는데 예배를 돕는 보조자로서 교도소를 떠날 때까지 아주 열심히 나를 도와주었다. 그가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재소자들의 예배에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가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었다. 그의 간증은 정말 놀랐다.

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날 이후로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에 나는 마음이 더 가볍고 행복해졌다. 심지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향한 거친 말이나 욕도 하지

하루는 소그룹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했다. 원을 만들어 앉아 있는데 저스틴이라는 키 큰 남자가 나에게 물었다.

“목사님, 이 그룹에 주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 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지 묻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저스틴은 옆에 앉은 젊은 남자에게 말했다.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 하는 기도를 할 테니 따라서 하십시오.”

기도로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손뼉을 치면서 기뻐했다. 교도소에서 죽은 영혼 살리는 일을 하는 많은 재소자 리더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졌다. 다시 또 다른 기적은 존을 통해 일어났다. 나쁜 소식을 듣고 몹시 상처를 받은 존은 감방에서 자살을 시도했고 교도관에게 발견되었다. 교도관은 존을 풀면서 하나님께 존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가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났다. 존은 교도관의 기도에 감사했고 시간이 흐른 후 그는 마음에 치유를 받고 설교를 할 수 있었다.

다음은 그의 설교였다.

“기도의 힘”-존 킹

3개월 전 나는 방향도 목적도 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약에 중독되어 아이들을 돌보는 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 대신 나의 일을 해주길 바라고 있던 중에,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기를 기

않은 사람이 되었다. 믿음을 더 강하게 도와준 것은 A동의 3호 형제들과 예배를 볼 때였다. 내가 그 그룹을 도우러 갈 때마다 정말 행복했다. 그들의 간증을 놀랍고 나를 감동시켰다. 이제는 매일 매일 주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제 나는 주님이 나의 구원자 이심을 확신하게 되었다.

구원

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교도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끊임없이 대화를 했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에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평안 가운데서 나의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기도와 용서를 통해 사랑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배웁니다. 나는 진실로 복 있는 자이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치유 받을 수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고 믿음은 영원한 치유를 허락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둠 속에 있으며, 고통으로부터 치유 받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고 인정할 것이라면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치유함을 받으세요.

존이 말을 끝내자마자 앉아 있던 남자가 일어나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앞으로 걸어나왔다. 존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를 위해 기도했다.

나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만약 존이 자살하려던 밤에 죽었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이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게 되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교도소의 훌륭한 영적 리더들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은, 교도소에 있어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선교 편지

니카라과

사랑의 위로와 격려가 성탄의 기쁨이 되기를...

1. 지난 주말 뉴욕에서 사역하고 계신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2.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셨던 집사님 한분께서 요즘 미국 임국을 위해 무작정 길을 떠난 카라반 소식을 접하면서 많은 어린이들이 눈에 밟힌다고 헌금을 하셨습니다. 3. 올해 니카라과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돕고 싶다고요. 4. 현지인 목회자들과의 회의 때 이 문제를 내어 놓았다면 가급적 많은 가정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5. 오늘 심대 파약을 위해 사전을 찍었습니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6. 북쪽으로 커피를 따라간 부모와 떨어져 아이들끼리 지내는 가정 7. 제가 보기에도 영양실조가 눈에 띄는 아

받아서 늦게라도 사면 안 되겠냐고 사정하는 간절한 목소리는 제 마음을 적셨습니다. 가정당 50불씩 현금으로 모두 80가정에 성탄 선물을 전해 드립니다. 주님께서도 이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니카라과장로교회 성탄 축제

매년 12월 둘째 주일은 아기 예수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제가 개척한 니카라과장로교회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성극 경연대회로 마사야제일교회에서 오후 2시에 모여서 모두 11 교회에서 열심히 준비한 성극 경연을 펼쳤습니다. 모두 12명의 니카라과 한인 선교사들이 심사하는 가운데 웃음도 박수도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실제로 갖



아기를 아기 예수로 출연시킨 교회도 있었고 두 젊은이가 나귀가 되어 마리아를 태우고 등장하는 깜짝 쇼도 있었습니다. 또 공중에 별을 띄우며 그 별을 보며 마구간으로 향해 오는 동방박사들...

많은 불거리와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에서는 큰 박수로

이들 8. 독거노인들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 나이를 몰랐더니 단 한분만 저보다 연세가 드셨어요. 9. 니카라과 사태로 일자리를 잃은 힘이 없는 가정들 10. 혼자서 걷는 것도 어려운 지적부자유자들 11. 일정한 직업이 없이 남의 집 빨래나 청소 해주고 살아가는 홀로된 자매들 12. 한 번도 사진을 찍어보질 못해서 눈을 맞추지 못하는 아이들, 모두가 제가 개척한 교회의 형제요 자매들이었고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미화 4불이 채 안 되는 돈이 없어서 제가 지원하는 성경책 구입을 못했노라고 이 지원금

격려하는 훈훈한 분위기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시상에 앞서 뉴욕제일교회 이름을 밝히지 않은 집사님께서 헌금을 주셔서 니카라과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부도 자녀들과 독거노인 80명에게 사랑의 성탄 선물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어린이부터 80세가 넘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출연하여 어우러진 기쁘고 놀랍고 은혜스러운 성탄 축제였습니다.

니카라과에서 대립될 기간에 이동홍 드림 missionnica21@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안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5:30(월-금), 6:00(토) 영아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E.M. Youth 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5:30(월-금), 6:00(토) 영아예배: 오전 9:30, 11:30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00(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아) 주일 학교: 오전 11:00 영아예배: 오후 9:30 토요일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 찬양예배: 오전 9: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cc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청소년 예배: 오후 1:20 영아전 (영소:KDC, 킹덤드림센터) 주일 학교: 오전 9:20 2부: 오전 9: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전 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오후 7:30 Tel: (714)719-2244, Fax: (714)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ong.org	디아스포라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 전하 픽스 권영자,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주일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mpci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linn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주일 학교: 오전 6:00(토)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소년 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h@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LA 복음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 김효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아동부/청소년부: 오전 11:00 청년부 성경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성경대학(목요):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Tel: (323)641-0691 / ys2104@hotmail.com / www.lagumc.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전: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전 11:45 금요예배: 오후 8:0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오후 6:00(토) 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8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 정상기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818)634-2315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	얼바인침례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3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L.A. 92604	일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 찬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안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기기도회: 365일 24시간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영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min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dcj.org	중은마음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 e-mail: pastor@laccornerstone.com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cornerstonech.com / e-mail: pastor@laccorner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3302	토렌스진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2:30(청년) 청야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cg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8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66-4400 Fax: (718)86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

크리스마스 축하 광고

Christmas Greetings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중에 평화로다 아니라(눅 2:14)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12

Tel.(562)691-0691
Fax.(562)691-0698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1645 Beverly Bl.
L.A., CA 90026

Tel. (213)481-2779
Fax.(213)481-3761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뉴욕셋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12-25 Clintonville St.
Whitheston NY11357

Tel. (718)361-9199
Fax.(718)361-943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295-7987
Fax.(516)883-1961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홍채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718)224-1993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

Tel. (702)749-9929
Fax. (702)478-7224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37-57 104St,
Flushing, NY 11368

Tel. (718)961-2171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중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홍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빛과소금의교회
담임목사: 장요셉

1864 Precinct Line Rd,
Hurst, TX 76054

Tel. (817)427-1020
Fax.(817)427-0110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

빛과 소금의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Tel.(310)749-0577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Cell.(704)877-6642
Tel.(704)529-0900

**세계한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김순관목사**

Tel.(808)542-2922
www.ikccah.org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Tel.(206)527-0981
Fax.(206)524-1746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얼바인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el. (949)857-9425
Fax.(949)857-9472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
(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Tel. (804)560-7500
Fax.(804)560-7514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el. (310)325-4020
Fax.(310)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el. (213)749-4500
Fax.(213)749-670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김바나바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Tel. (718)672-1150
Fax.(718)672-1151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필라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808)585-1859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2122 Metcalf St.,
Hon., HI 96822

Tel. (808)947-5252
Fax.(808)947-5151

기독교 경영 전략

기독교 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 (36)



제임스구 교수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행정처장)

기업법과 성경적 원리(3)

A. 면제와 담당의 원리

법률은 채권자들이 빚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전혀 받지 못하게 될 때 파산자가 자기의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하는 빚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하고 있다. 엄격히 말하면 파산 법정에 의한 채무자의 부채의 면제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존재하는 계약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 법칙은 계약이란 준수되어야 하며 부채는 갚아야 한다는 가르침과 동시에 부채의 면제와 담당의 원리를 인정하고 있다. 면제의 원리는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율법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레25:3-13, 신15:1-10).

저명한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William Blackstone) 경은 영국의 파

자와 채권자에 관한 성경법칙에 대해로 일치한다.

출애굽기 22장 26-27절에는 겉옷과 같이 없어서는 안 될 개인 재산에 대한 면제와 신명기 24장 12-13절에 있는 가난한 자의 전당물, 신명기 24장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생산하기 위한 멧돌과 같은 어떤 사람의 일하는 도구, 레위기 25장 23-28절에 있는 어떤 사람의 특별한 택지에 대한 성경말씀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면제의 개념을 모세 율법에 영향을 받은 영국의 관습법으로부터 미국법에 전수된 것이다.

B. 기업 관계상의 정직

성경은 거래 관계에 있어서 정직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십계명과 구약 성

의 다른 규정으로는 담보, 대리에서의 헌명 요건과 신약법, 위증에 대비한 법률, 유언에 있어서의 증명 요건이 있으며, 또 사기에 관한 법규도 있는데 모든 계약은 강제로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체결된 거래를 일방 당사자가 허위 진술하지 못하도록 문서로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 재산 소유권의 개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소유권은 '절대적'이지 않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대리자로서 부섭정적(Vice-regent) 지배권을 가진다(창1:28, 창9:1, 시8:6-8).

성경은 재산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벌함으로써 특별히 부동산과 동산 소유자들의 권리를 보호

채무회수 채권자의 정당한 이익과 채무자에 대한 자비한 면제 사이 중간 그리스도인의 소유권은 '절대적' 이 아닌 하나님 주신 부섭정적 지배권만

산법을 보면 채무회수라는 채권자의 정당한 이익과 채무자에 대한 자비로운 면제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긴장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영국의 법률들은 양극단 사이의 중간을 지향하고 있다. 즉 채권자가 자신의 물건들을 완전히 다 넘겨주었는데도 선의의 파산자를 감금하고 전혀 괴로워하지 않는 채권자의 불인정에 즉시 이익을 제기하면서도, 동시에 물건이 제공되는 한 모든 정당한 부채가 지불되어야 한다고 한다.

블랙스톤이 말하는 바대로 당시 시행 중이던 영국의 파산법은, 파산으로 계정에 지불이 밀려있는 채무자들로부터 회수된 채무회수 부채를 요구하기 위하여 채권자들에게 의하여 사용되었다. 동시에 영국의 법률은 부채의 일부만을 면제했다 할지라도 빚을 저서 절망에 빠진 사람이 그 부담으로부터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것이 면제의 원리이다.

미국의 파산법은 1978년 개정파산 법률, 표제 11, 미 법제처에 의해서 파산 채무자는 많은 보호를 받았다. 파산자들에게 대한 어떤 개인 재산, 생산을 위한 도구, 택지에 관한 면제들은 채무

경의 율법들은 부정직과 허위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물론 십계명에서 거짓 증언과 도둑질은 둘 다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상업상의 절도나 기만이라는 더욱 특별한 사례들은 재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되고 있다. 성경에는 "도량형에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며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레19:36, 신25:13-15, 잠11:1).

이러한 구절들의 일반적인 원리는 사기적이고 거짓된 상거래를 금지하는 것이다. 물론 현대법은 사기(Fraud), 위증(Misrepresentation), 속임수(Deceit)에 대한 성문법 또는 판례법 속에서 이 원리를 인적하고 있다.

허위 사실을 고의적으로 진술하였는지, 비교의적으로 진술하였는지를 구별하여 주의를 기울여 물건을 산 구매자에게도 약간의 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현대의 규정들은 복잡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기에 관한 법률은 사치를 당한 당사자가 그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 체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적법한 거래 관계에서 정직하라는 성경적 요청과 일치하는 현대 기업법

하고 있다. 동산의 절도는 십계명에서 비난하고 있으며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물건이나 그 가치를 원상 복구시킴) 하도록 명함으로써 그리고 조과배상(흠진 물건의 가치의 배수인 금액)의 지급을 명함으로써 벌을 주고 있다.

기업법은 기업이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법률적으로 규정된 법이다. 그리스도인 기업은 정부가 정해준 기업법 내에서 기업 활동을 해야 한다. 때로는 기업법이 기업의 활동에 영향을 준다. 기업법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원리는 주어진 기업법 테두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기업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연재된 기독교 경영 전략(Christian Business Strategy) 강의에 관심을 가져준 독자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강의 자료는 아마존 사이트에서 Christian Business Strategy in the Marketplace: Biblical Principles and Business as Mission 책자를 찾아볼 수 있다.

(끝)

dr.jameskoo@yahoo.com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매일가정예배

월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왕상8:15-21)

본문에서 성전건축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계시 수 있는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만 보시고도 그의 생애와 그의 자손 마음에 맞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었다고 하신 것이 두 번 나오는데 한번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고 했을 때와 또 한번은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후 무엇을 원하는지를 물으셨을 때 지혜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마음 중심을 인정받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진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높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며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화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왕상8:22)

본문은 봉헌축사를 낭독하면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봉헌기도로서 공예배에 대표기도로 가장 완벽한 기도의 모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기도의 모본입니다.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곧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같은 기사가 나오는 역대하6:13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릎을 꿇는다"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강조형 동사로 바뀌면 "축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은 곧 쌓아놓으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수 주와 같은 신은 없나이다(왕상8:23)

역대하7:16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늘을 향해 손을 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이 온 우주에 하나님 한분만이 유

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고백 속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 힘이 있고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더욱 확실한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다 무효입니다. 오직 삼신하위에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오늘도 응답되는 것입니다.

목 은혜를 베푸시나이다(왕상8:23)

하나님께서서는 진실하고 간절할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23절 하반에 "은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은 마음으로 행한다"는 뜻은 무엇을 하든지 진실하고 간절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고 간절할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뿐 아니라 더 후하게 대접해 주십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를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이다(대하16:9).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나이다(렘33:3).

푸시고 호의를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온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실 뿐 아니라 더 후하게 대접해 주십니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를 많이 위로해 주십시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이다(대하16:9).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나이다(렘33:3).

금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왕상8:24)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은 그 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도 상

대방이 말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 것이며 비로소 좋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후 다시 무효가 되거나 없었던 것으로 될 수 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형통하게 이루어 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사55:6, 12).

토 그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왕상8:25)

본문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내 길을 삼가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자기 길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길을 삼가"라는 "삼가"라는 히브리어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조심하다, 삼가다"라는 뜻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로 모든 일에 더욱더 적극적인 관심과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나의 길,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이 자꾸 교차될 것입니다. 그 때마다 나의 길과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따르게 될 때 더 놀라운 응답의 역사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해의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across the United Stat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times for churches like Kumran, Roman Catholic, and others.

피종진 목사 국내 · 외 성회 일정

다사다난했던 한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저를 초청하여 부흥집회를 개최하신 국내외 모든 교회와 교단 그리고 기관들 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른 복음, 바른 신앙, 바른 생활 속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넘치는 축복이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단국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학과
· 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및 목회대학원
·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 미국 Philadelphia Faith대학원(D, Min)
· 미국 Henderson C. 대학교(Th, D)
· (사)세계기독교부흥사협회 대표총재
· (재)세계복음화협의회 대표총재
·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 대표총재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HP : 010-5255-7777

- ### 1월
- 1(월)-3(수) 서울 시온성교회(임후자 목사) ☎ 010-6231-7532
 - 4(목) 저녁 새중평화동산(임영장 피종진 목사) ☎ 041)852-2211
 - 4(목) 철야 안양 갈렙산성교회(임영장 임예제 목사, 담임 조성근 목사) ☎ 031)472-7212
 - 5(금) 오전 국민비전부흥사협의회(총재 고충진 목사) ☎ 010-3899-0691
 - 6(토) 저녁 부천 갈보리교회(조예현 목사) ☎ 032)657-5177
 - 7(주) 저녁 천안 행복교회(성권삼 목사) ☎ 041)668-0688
 - 8(월) 저녁 오산리최자실기념교회(김영장 권경환 목사) ☎ 031)947-0091
 - 9(화)-10(수) 포항 호산교회(박민정 목사) ☎ 010-5873-4564
 - 11(목)-12(금) 청평 강남침례교회(김성광 목사) ☎ 031)684-1001
 - 14(주)-17(수) 남서울침례교회(최요한 목사) ☎ 031)276-9191
 - 18(목)-19(금) 순천 샘솟는교회(강신항 목사) ☎ 010-8606-0691
 - 20(토) 오후 김해 정유주안교회(정상은 목사) ☎ 010-3578-2744
 - 21(주) 저녁 구리 에바다교회(김현숙 목사) ☎ 010-3036-4989
 - 24(수) 오전 한국기독교영광회 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이 선 목사) ☎ 02)620-0712
 - 장소: 백석대학교 대학원
 - 25(목) 오후 청주 국제실로교회(이기범 목사) ☎ 010-3788-9540
 - 26(금) 오전 서울 목양교회(임준식 목사) ☎ 02)2643-4471
 - 26(금)-27(토) 인천 능력교회(김미경 목사) ☎ 010-2859-5521
 - 28(주) 저녁 대구 세계성교회(최천교 목사) ☎ 010-6777-1412
 - 29(월)-31(수) 인천 국제음향교회(김영수 목사) ☎ 010-5688-0091

- ### 2월
- 4(주) 오후 서울 양문교회(박성권 목사) ☎ 010-4747-6031
 - 5(월) 오전 부평 사랑발전교회(권대일 목사) ☎ 010-2123-4405
 - 5(월)-7(수) 서울 능서교회(배승모 목사) ☎ 010-5838-0001
 - 12(월)-14(수) 서울 에바다교회(김진우 목사) ☎ 010-3403-9190
 - 15(목)-17(토) 새창원음향교회(피은혜 목사) ☎ 010-6540-8642
 - 18(주) 오후 서울 수산성교회(김주성 목사) ☎ 010-5038-0691
 - 19(월)-21(수) 서울 복원교회(박영복 목사) ☎ 010-4745-0261
 - 20(화) 오전 전국목회자자녀세미나 / 장소: 오산 성은동산 주회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 ☎ 031)611-3397
 - 21(수) 오후 성남 제자교회(남보석 목사) ☎ 010-7743-6222
 - 주회: 남북통일성교회(회장 장기철 목사)
 - 23(금) 오전 안산 엘리트성교회(김우경 목사) ☎ 010-8898-9141
 - 25(주)-28(수) 서천 한산리교회(정진모 목사) ☎ 010-3032-9191

- ### 3월
- 제211차 해외성회(211st Overseas Assembly)**
- 2(금) 오전 미국(U.S.A) 남가주 목사회 세미나 장소: LA 로복스호텔 ☎ 213)215-6021
 - 주회: 남가주 한인목회(회장 샘 신 목사)
 - 3(토) 오후 미국(U.S.A) 남가주 한인 & 히스패닉 영적각성성교회 장소: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 목사) ☎ 213)749-4500
 - 4(주) 오후 미국(U.S.A) 남가주 한인 31절 기념연합성회 장소: LA 미추안교회(임승진 목사) ☎ 213)381-2202
 - 5(월)-7(수) 미국(U.S.A) 남가주 한인목사 사모영성수련회 장소: Lake Arrowhead 산장 / 주회: 남가주 한인목사 사모회
 - 8(목) 미국(U.S.A) 아틀란타 아가페교회(김진우 목사) ☎ 678)642-7526
 - 8(목)-11(주) 미국(U.S.A) 아틀란타 예수사랑성교회(문길영 목사) ☎ 770)403-6898
 - 11(주) 오전 미국(U.S.A) 아틀란타 영락교회(전재창 목사) ☎ 404)421-0556
 - 12(월)-13(화) 미국(U.S.A) U.K.P.C. 분당부흥회 연합사역자부흥회(대표회장 박성근 목사) ☎ 404)916-6764
 - 13(화) 오전 미국(U.S.A) 아틀란타 화요연합기도성회
 - 18(주) 오전 서울 예일교회(허동민 목사) ☎ 010-3064-8291
 - 19(월) 오전 서울목회자카페(대표회장 김재용 목사) ☎ 010-5257-0374
 - 19(월)-21(수) 군산 예수성령교회(김영선 목사) ☎ 010-8924-4927
 - 22(목) 저녁 성남 영광교회(전옥민 목사) ☎ 010-2445-1691
 - 24(토) 오전 평평 예수성령교회(주승준 목사) ☎ 010-5257-0374
 - 26(월) 오전 여의도순복음성령교회(이재민 목사) ☎ 031)772-9113
 - 26(월)-28(수) 구미 등대성교회(최애스 목사) ☎ 010-9341-1230
 - 30(금) 오전 유성 엘리트교회(백효선 목사) ☎ 010-5736-3004

- ### 4월
- 1(주일) 저녁 서울 사도교회(김희준 목사) ☎ 010-8633-0190
 - 2(월)-4(수) 광주 살롬신학교(원정 고정임 목사) ☎ 062)432-6392
 - 5(목) 저녁 김포 하늘비전교회(김영수 목사) ☎ 010-7721-2286
 - 6(금) 오후 의정부 다나엘침례교회(김영수 목사) ☎ 010-8380-9554
 - 9(월)-13(금) 청평 강남침례교회(김성광 목사) ☎ 031)684-1001
 - 15(주) 저녁 서울 침사교회(조은산 목사) ☎ 010-9377-7090
 - 16(월) 오후 서울 백석대학교(총재 최갑중) 실천목회대학원(이 선 목사) ☎ 02)620-0801
 - 16(월)-18(수) 서울 영등포 광야교회(임영희 목사) ☎ 010-7734-3373
 - 19(목) 오후 안산 우리교회(김남식 목사) ☎ 010-3350-0091
 - 19(목)-21(토) 충주 미사비침례교회(김성광 목사) ☎ 010-7136-7669
 - 22(주)-25(수) 인천 성민교회(현인식 목사) ☎ 010-6233-1536
 - 23(월) 오전 (사)한국복음화협의회(총재 임영장 송용필 목사) ☎ 031)780-9500
 - 장소: 분당 힐빌루아교회(김승욱 목사)
 - 27(금) 오전 여수 국제음향교회(김성진 목사) ☎ 061)643-2056
 - 28(토) 오전 울산 큰축복교회(김성화 목사) ☎ 010-5378-9125
 - 29(주) 저녁 서울 사도교회(김희준 목사) ☎ 010-8633-0190

- ### 5월
- 1(화) 오전 한국뉴욕주립대학교(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 M.E.C
 - 제212차 해외성회(212nd Overseas Assembly)**
 - 1(화)-3(목) 이스라엘(Israel) 베들레헴세계기도대회 주회: I Pray For All Nation Association
 - 4(금) 이스라엘(Israel) 예루살렘 김합선, 갯세미네, 베데스다, 마가다력방 Pray For Jerusalem
 - 5(토) 이스라엘(Israel) 사해, 아리고, 콤란, 엔게디, 맛사다 Pray For Qumran
 - 6(주일) 이스라엘(Israel) 베들레헴 예배, 헤브론, 벨렘, 세겔, 사마리아 Pray For Bethlehem
 - 7(월) 이스라엘(Israel) 갈릴리, 헤룰라, 가이사라 빌립보, 골란공원 Pray For Galilee
 - 8(화) 이스라엘(Israel) 자중해, 가버나움, 가나, 갈릴산, 나사렛, 자중해, 가이사라 Pray For Carmel Mount
 - 9(수) 이스라엘(Israel) Closing Revival Worship
 - 10(목) 저녁 서울 제일침례교회(김성수 목사) ☎ 010-7271-1675
 - 12(토)-13(주) 서울 사도교회(김희준 목사) ☎ 010-8633-0190
 - 14(월)-16(수) 안양 소망교회(최은숙 목사) ☎ 010-9677-8291
 - 17(목) 오전 서울 비전성교회(한학근 목사) ☎ 02)2236-1002
 - 17(목)-19(토) 구미 축복교회(이상선 목사) ☎ 010-2595-8724
 - 20(주)-22(화) 필리핀(Philippines) 세부 원주민성회 (대회장 성권삼 목사, 성회위원장 김용규 목사)
 - 23(수)-24(목) 필리핀(Philippines) 만다나오 국제학교성회 (대회장 성권삼 목사, 준비위원장 김용희 목사)
 - 25(금) 오후 오산리최자실기념교회(김영장 권경환 목사) ☎ 031)947-0091
 - 26(토) 정오 안산 임마누엘교회(이상남 목사) 안성수양관 ☎ 010-9227-9397
 - 26(토) 오후 광명 동성장교회(이영선 목사) ☎ 02)2060-4391
 - 27(주)-31(목) 필리핀(Philippines) 팔라바시 학원성회 주회: 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M.E.C)

- ### 6월
- 1(금) 저녁 오산리최자실기념교회(김영장 권경환 목사) ☎ 031)947-0091
 - 주회: GoodTV부흥사협의회(대표회장 성권삼 목사)
 - 2(토) 오전 세계선교대회 포럼(대표 최요한 목사) ☎ 010-3767-0347
 - 4(월)-8(금) 청평 강남침례교회(김성광 목사) ☎ 031)684-1001
 - 11(월)-13(수) 광주 제자교회(남보석 목사) ☎ 010-8477-0191
 - 16(토)-17(주) 서울 사도교회(김희준 목사) ☎ 010-8633-0190
 - 18(월) 오전 한국뉴욕주립대학교(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 M.E.C
 - 제213차 해외성회(213rd Overseas Assembly)**
 - 18(월)-19(화) 일본(JAPAN) 오가이제 사랑순복음교회(김동수 목사) ☎ 90)1270-5127
 - 20(수)-21(목) 일본(JAPAN) 아사미가도원(원장 남석순 목사) ☎ 90)270-5127
 - 23(토) 오전 안양 갈렙산성교회(임예제 목사, 담임 조성근 목사) ☎ 031)472-7212
 - 24(주) 오전 용인 우리교회(소애스 목사) ☎ 010-4441-5220
 - 25(월) 오후 오산리최자실기념교회(김영장 권경환 목사) ☎ 031)947-0091
 - 25(월) 저녁 안산 광은교회(김희준 목사) ☎ 031)668-0553
 - 26(화)-29(금) 미국(U.S.A) 워싱턴 DC Nysck Conference 1 8 주회: Nysck World Mission(HQ:뉴욕, 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최교선 목사) ☎ 010-4440-2777

- ### 7월
- 1(주) 오후 김포 강림교회(조경숙 목사) ☎ 010-8222-1992
 - 2(월)-3(화) 필리핀(Philippines) 팔라바시 Bethel Praise교회(허용철 선교사)
 - 4(수)-5(목) 필리핀(Philippines) 팔라바시 원주민 목회자 - 선교사 MT
 - 8(주)-11(수) 여수 국제음향교회(김성진 목사) ☎ 061)641-0097

- 15(주)-17(화) 서울 임마누엘교회(최영수 목사) ☎ 02)436-1777
- 16(월) 오전 한국뉴욕주립대학교(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 M.E.C
- 장소: 오산 아가페침례교회(제광명 목사) ☎ 010-5452-1691
- 18(수) 오전 부천 선한목회자기념교회(손성영 목사) ☎ 010-7567-8291
- 주회: 월드기독교총연합회(이사장 정진희 목사)
- 19(목)-21(토) 인천 국제음향교회(김승욱 목사) ☎ 010-5688-0091
- 20(금) 오후 인천 열방전교회(김성수 목사) ☎ 010-4440-2777
- 22(주) 저녁 서울 리복교회(김현숙 목사) ☎ 010-3036-4989
- 24(화) 오후 대구 길림성교회(본부장 최천교 목사) ☎ 010-6777-1412
- 24(화) 저녁 대구광역시 기독교연합회(회장 허영수 국장) 주권 대구 중구 - 동구청 신우회 장소: 대구 문화교회(이재현 목사) ☎ 053)423-7844
- 25(수)-28(토) 순천 샘솟는교회(강신항 목사) ☎ 010-8609-0691
- 29(주) 저녁 서울 사도교회(김희준 목사) ☎ 010-8633-0190
- 30(월) 저녁 Nysck Family Conference 대전 2018, 장소: 건양대학교(논산 Campus) 주회: Nysck World Mission(HQ:뉴욕, 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최교선 목사) 천안음향교회 문공리수양원(원장 강홍규 목사) ☎ 010-9179-9344

- ### 8월
- 1(수) 저녁 서울 경동순복음교회(이상철 목사) ☎ 010-2355-9191
 - 2(목) 저녁 세종평화동산(임영장 피종진 목사) ☎ 041)852-2211
 - 3(금)-4(토) 청주침례교회(김영수 목사) ☎ 010-5736-3004
 - 6(월)-8(수) 원주 학생성교회(최영명 목사) ☎ 033)731-9515
 - 9(목)-11(토) 구미 방주교회(김영선 목사) ☎ 010-8280-0346
 - 13(월) 오후 오산리최자실기념교회(김영장 권경환 목사) ☎ 031)947-0091
 - 14(화)-15(수) 대구 글로벌유니버시티(원장 강은숙 목사) ☎ 010-6358-8999

- ### 제214차 해외성회(214th Overseas Assembly)
- 15(수)-17(금) 일본(JAPAN) 오키와야교회(원정 임영장 김양희 목사) ☎ 010-2101-3998
 - 18(토) 오후 아산신학연구원(원정 한재갑 목사) ☎ 010-8633-0190
 - 19(주) 저녁 서울 사도교회(김희준 목사) ☎ 010-8633-0190
 - 20(월) 저녁 뉴욕주립대(MEC) Guest House(관장 홍은혜) ☎ 010-9551-9117
 - 21(화) 오후 강릉 베데스다교회(원정 이강호 목사) ☎ 033)647-1501
 - 23(목) 저녁 포항 금교교회(장성진 목사) ☎ 010-3381-0675
 - 주회: 경동노회 아전도회연합회(회장 허영수 권사) ☎ 02)2618-8877
 - 서울 남현교회(이춘복 목사) ☎ 031)896-1000
 - 26(주) 저녁 용인 세이렌교회(소강석 목사) ☎ 070-8625-9118
 - 27(월)-28(화) 일본(JAPAN) 나라타사망교회(최대만 목사) ☎ 070-8625-9118
 - 29(수) 일본(JAPAN) 나라타갈렙산성교회(원정 김대일 목사) ☎ 090-6535-9118

- ### 9월
- 1(토) 오후 안양 갈렙산성교회(담임 조성근 목사) ☎ 031)472-7212
 - 2(주) 오후 서울 백합장교회(김용희 목사) ☎ 010-5209-8333
 - 3(월)-6(목) 중국(China) 북경 Conference 주회: 연세대학교 총동문 목회자부흥협의회 (총재 김영선 목사, 대표회장 정영희 목사, 사무총장 김진우 목사) ☎ 010-3958-0158
 - 7(금)-9(주) 서울 빛나는새별교회(김영희 목사) ☎ 031)684-1001
 - 10(월)-12(수) 청평 강남침례교회(김성광 목사) ☎ 010-5873-4564
 - 13(목)-15(토) 포항 브니엘교회(박민정 목사) ☎ 010-8222-1992
 - 16(주)-17(월) 한국뉴욕주립대학교(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 M.E.C
 - 17(월) 오전 서울 연영대학교(총재 현영훈 목사) ☎ 02)2616-8688
 - 20(목) 오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김승욱 목사) ☎ 010-5309-0091
 - 21(금) 오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회장 김승욱 목사) ☎ 010-5309-0091
 - 22(토) 오후 세계선교사역자분회(대표회장 피종진 목사, 이사장 김성수 목사) ☎ 010-4440-2777
 - 23(주) 저녁 서울 사도교회(김희준 목사) ☎ 010-8633-0190
 - 24(월) 오전 서울 주사랑교회(남은미 목사) ☎ 010-8263-3200
 - 24(월)-28(수) 아산 전원교회(노베드로 목사) ☎ 010-8234-0690
 - 27(목)-29(토) 성남 제자교회(남보석 목사) ☎ 010-7220-0733
 - 29(토) 오후 광명 동성장교회(이영선 목사) ☎ 02)2060-4391

- ### 10월
- 1(월)-3(수) 광주 제자교회(조홍식 목사) ☎ 010-8477-0191
 - 7(주) 저녁 대전 주안성교회(전정순 목사) ☎ 041)531-7216
 - 8(월) 오전 한국뉴욕주립대학교(Th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Korea) M.E.C
 - 장소: 오산 아가페침례교회 ☎ 010-997-5606
 - 11(목)-12(금)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총동문회(대표회장 오병열 목사) MT
 - 12(금) 철야 오산 경기도원(원정 김한배 목사) ☎ 031)668-0553
 - 13(토) 오후 세계선교사역자분회(대표회장 피종진 목사, 이사장 김성수 목사) ☎ 010-4440-2777
 - 14(주)-17(수) 군포 성당교회(김기인 목사) ☎ 010-5277-7593
 - 18(목) 오후 곡성 나눔성령교회(원정 김현식 장로, 이사장 박은임 목사) ☎ 010-2646-2691
 - 19(금)-21(주) 서울 결심교회(고은자 목사) ☎ 010-4664-8751

- 21(주) 저녁 원주 중부교회(김미영 목사) ☎ 033)744-2761
- 주회: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 22(월) 오전 (사)KAICAM 목사인수식 장소: 분당 힐빌루아교회(김승욱 목사) ☎ 031)780-9500
- 제215차 해외성회(215th Overseas Assembly)**
- 22(월)-24(수) 미국(U.S.A) 라스베이거스 블루문교회(노은철 목사) ☎ 702)628-4621
- 26(금) 저녁 미국(U.S.A) LA 은혜한인교회(한기흥 목사) ☎ 714)446-6200
- 27(토)-28(주) 미국(U.S.A) 오렌지카운티 새영교회(김영진 목사) ☎ 562)833-5520
- 29(월)-31(수) 미국(U.S.A) LA 한미연합총회(총회장 김 [주]재임 목사)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America General Assembly(RPCA) 목회자세미나 (후회: 남가주한인목사회, 한인(여성목사회) ☎ 213)219-1187

- ### 11월
- 4(주) 오후 서울 백합장교회(김용희 목사) ☎ 010-5209-8333
 - 4(주)-5(월) 서울 국제교회(김영장 목사) ☎ 010-8839-8899
 - 5(월) 오후 새창원음향교회(피은혜 목사) ☎ 010-4586-8642
 - 6(화)-8(목) 진주국제기독교원(원정 김진우 목사) ☎ 055)748-7209
 - 9(금)-10(토) 구미 방주교회(김영선 목사) ☎ 010-8280-0346
 - 12(월)-14(수) 서울 에바다교회(김진우 목사) ☎ 010-3403-9190
 - 15(목)-17(토) 김천한성교회(한혁 목사) ☎ 010-5503-0826
 - 17(토) 오전 서울 예수총리교회(김영선 목사) ☎ 010-8462-5700
 - 18(주) 저녁 서울 권영광교회(윤영욱 목사) ☎ 010-7532-7731
 - 19(월)-21(수) 청평 강남침례교회(김성광 목사) ☎ 031)684-1001
 - 22(목)-23(금) 천안 위대학성교회(임미향 목사) ☎ 010-4511-0538
 - 23(금) 오전 동탄 꿈나무교회(김현숙 목사) ☎ 010-7667-4719
 - 25(주) 오전 부평 사랑발전교회(권대일 목사) ☎ 010-6265-6755
 - 26(월) 오전 한국성서학회(총재 강태원 목사) ☎ 02)848-1115

- ### 제216차 해외성회(216th Overseas Assembly)
- 26(월) 일본(JAPAN) 시모노세 항해중 선상집회 (주회: CBS TV)
 - 27(화)-28(수) 일본(JAPAN) 나가사키기원, 사세보, 세계문화유산 등재 기념대회 (주회: 이다 미사즈미 이사장)
 - 일본(JAPAN) 오무라, 히라도, 운재 순례 MT (주회: CBS TV 일본성교회)
 - 일본(JAPAN) 시마네(주회: CBS TV 일본성교회)

- ### 12월
- 1(토) 오후 서울 영동중앙교회(전동문 목사) ☎ 010-7106-5565
 - 2(주)-5(수) 청양순복음교회(이계하 목사) ☎ 010-4511-0538
 - 6(목)-7(금) 대구 힐링센터(김복록 목사) ☎ 010-5503-0826
 - 8(토) 오전 총회(합동) 부흥사회 대표회장(리성열 목사)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 02)741-4370
 - 부산 해운대 희망의교회(조경숙 목사) ☎ 010-4920-7307
 - 10(월) 오전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피종진 목사, 총재 이종민 목사, 대표회장 장호근 목사) 정기총회 장소: 아전도회관 ☎ 02)708-3131
 - 13(목) 오후 서울 연세중앙교회(윤석진 목사) ☎ 02)2680-0001
 - 13(목) 오후 (재)세계복음화협의회, 장소: 국민일보빌딩 12층 (대표회장 피종진 목사, 실무총재 현영훈 목사,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
 - 14(금)-15(토) 미국(U.S.A) LA F, Education Council Association & D.E.A Education
 - 15(토)-16(주) 미국(U.S.A) LA 한영총회(최요셉 목사) ☎ 714)644-8375
 - 17(월)-19(수) 미국(U.S.A) LA 한미연합총회(김주재임 목사) ☎ 213)219-1187
 - 23(주) 오후 원주 중부교회(한기흥 목사) ☎ 033)747-0690
 - 24(월) 오후 나라사랑 국민연합 기독교대회(대회장 한정수 목사) 장소: 서울 아전도회관 ☎ 02)708-3131
 - 25(화) 오후 인천 감리교회(조경숙 목사) ☎ 010-8222-1992
 - 26(수)-27(목) 김포 침사교회(이인성 목사) ☎ 010-6231-8591
 - 28(금) 오후 서울 방주교회(김진우 목사) ☎ 010-4483-3500
 - 31(월) 저녁 서울 남서울중앙교회(원로 피종진 목사, 담임 여진근 목사) ☎ 02)3411-9191

피종진 목사 TV 방송설교 - 땅끝까지 복음

- CBS 워싱턴방송 TV 부흥강단 - 매주 주일 오후 5:30 인터넷: www.cbs.co.kr
- GoodTV방송 생명의 샘터 - 매주 수요일 오전 11:30(재방송: 매주 목요일 오전 1시) 인터넷: www.c3tv.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 02)3411-9191, FAX : 02)401-7770

E-mail : Godbless3377@gmail.com

